

진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랑과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염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다모데후서 2장 15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7월 21일 (토) 제 1690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영적 성장에 도움 안 되면 교회 떠난다!

#### CT, 라이프웨이 최근 설문조사 “교인들 교회 바꾸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제언 소개

미국 교회에서 만들어진 단어 중에 “예배 전쟁”이라는 말이 있다. 즉 구도자들이나 젊은 세대들을 위한 현대 예배 스타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담임 목회자들은 바깥 긴장해서 어떤 예배 스타일을 유지해야 새로운 교인들이 오고, 기존 교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에 집중할 적이 있다. 특히 지나치게 특히 교회 경배 찬양에 집중했다. 그러나 라이프웨이에서 발표한 최근 리서치 (Churchgoers Stick Around for Theology, Not Music or

Preachers)에 따르면, 교인들에게 찬양이나 사람과의 관계는 불평거리가 만들지만 교회를 떠나게 하지는 않는다. 다만 교회의 교리 즉 신앙 방향이 성경에서 벗어나면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현실이 발견됐다(New Research: Churchgoers Stick Around for Theology, Not Music or Preachers: Don't mess with a church's beliefs or there may be an exodus, according to a new study from Nashville-based LifeWay Research).

교인들이 출석하는 교회를 바꾸는 원인은 다양하다. 가장 큰 이유는 사는 곳을 옮기거나 아니면 다른 교파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였다. 그런데 이런 이유 말고도, 이들의 약 36%에 해당하는 교인들은 다니던 교회나 그 교회의 사람들이 싫어서 다른 교파의 교회를 찾는 것이 이제까지의 유형이었다(퓨리서치,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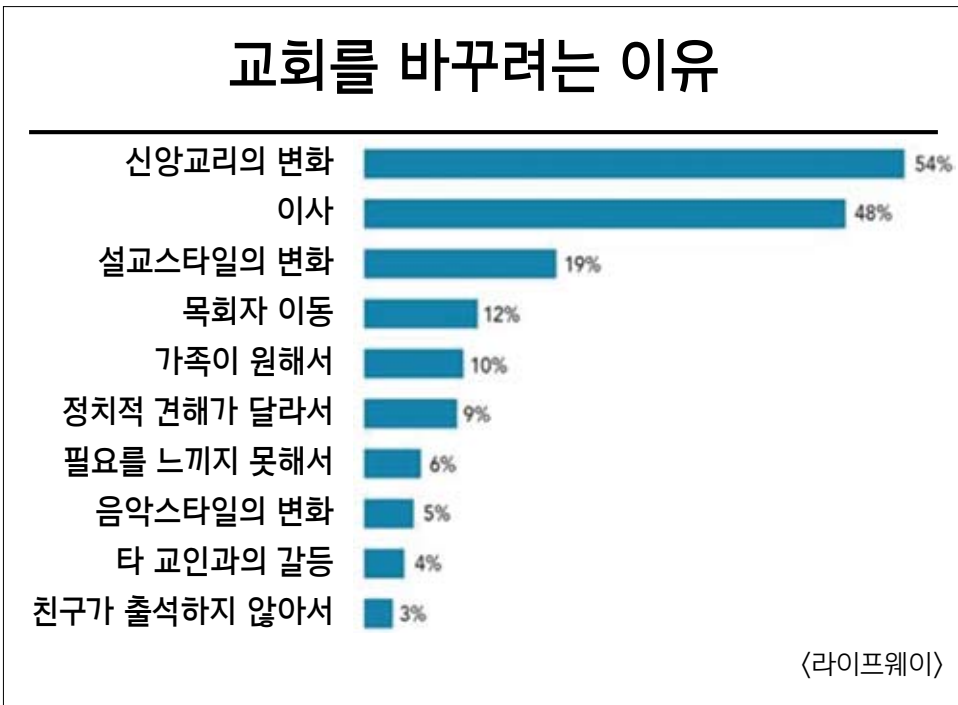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회의 교리, 즉 신앙 방향이 맞지 않아서 교회를 떠났다는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았다. 목회자의 설교나 교인의 성향, 예배 스타일 등은 순위에 있어서 뒤쳐졌다.

“라이프웨이”는 2017년 8월 20일부터 30일까지, 미 전역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로 옮길 것을 생각했는가?”라고 물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설문자들 중 대부분은 현 교회에서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이 응답한 내용이다.

이들 중 15%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85%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교회 성도의 5명중 1명 정도는 평소에 교회 이적을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다.

교회를 바꿔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교회의 교리 변화’였다. 무려 절반이 넘는 54%가 여기에 포함됐다. 교회의 신앙 노선이 변하는 상황이 가장 급격하게 성도의 이탈을 불러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교인의 이사가 48%를 차지해 교리 변화와 함께 교회를 이적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라이프웨이가 설문을 통해 얻고자 했던 중요한 사실은 “과연 교인들이 얼마나 현재 다니는 교회와 유대를 다지고 있



는가?”였다(Churchgoers Views - Strength of Ties to Church). 다시 말해서, 교인들이 얼마나 현재 출석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관건이었다. 그 결과, 35%는 10-24년, 27%는 25년 이상, 17%는 5-9년 그리고 21%가 5년 미만이었다.

주류교단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루터교인(57%), 감리교인(40%) 그리고 침례교인(31%)가 25년 이상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교단 교인(11%), 하나님교회/펜타코스트(13%)이 거의 같은 기간 동안 동일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마디로 이들은 현재 담임 목회자보다 더 오래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

한편 교회 헌신도 또는 기여도를 묻는 설문에서 57%의 응답자들은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28%는 “아주 많이”, 11%는 “어느 정도”였고, 2%는 “거의 없고”, 1%는 “전혀 없다”였다. 한마디로,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현재 교회에서 충성되게 섬기고 있었다.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 울수룩,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게 된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출석한 사람일수록 교회에 헌신하는 비율(62%)이, 한 달에 1-2번 정도 온 사람들(31%)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았기 때문이다.

(3면으로 계속)



###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한 준비가 있다!

#### 처치리더스.컴, 목회지망생들에게 론 에드먼슨 목사가 들려주는 7가지 제언 소개

론 에드먼슨(Ron Edmondson)은 목사이자 교회 개혁에 힘쓰고 있는 교회의 리더로서, 기존 교회들이 부흥하고, 목회자와 목회 일을 하는 이들이 리더십과 전략, 삶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론 에드먼슨 목사는 대부분 자영업 기업가로 일을 하며 20년 넘게 경영을 했고 10년간 교회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는 정기적으로 젊은 목회자들이나 목회자 후보생들과 만나 교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의 고민이나 물음에 대해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실제적인 노하우를 전해주고 있다. 따라서 목회자이자, 세상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목회를 희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참 귀한 지침을 전해준다(7 Recommendations for Those Studying to Be a Pastor).

### 영적 마음과 정신 준비 외 동료, 멘토 필요 경영, 리더십 공부...세상일도 해봐야

매주 젊은 목회자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다. 더불어 목회자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면서 다음 세대 리더들에 쏟는 시간이 너무 좋고, 또 과거 나에게 시간을 내주었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최근 교육하는 젊은 목회자 중 한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만약 선생님이 제(대략 22살)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좋은 질문이다. 만약 내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면, 이 일을

말기 이전에 확실히 이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현재 목회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직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다.

1. 경영이나 리더십 강좌를 들어야 한다.

신학교와 성경 대학에서 특히 요즘 리더십 분야에 시간을 더 내졌지만, 인터넷이나 다른 학교의 몇몇 강좌를 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비전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	---------------------------------------------------------------------------------------------	--------------------------------------

월드비전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청소년서적 / 성구 / 생애 역사 / 가운 / 도배물 / 영성서적 / 영성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18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innard Terrace Patuxent Park, NJ 07650

전화 347-952-5442 1-800-404-1171 E-mail: jgospelma1@gmail.com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었던 Forever 우표 (행정 가격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aboo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시론 최해근 목사	2면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7면
----------------------------------------------------------------------------------------------------	----	------------------------------------------------------------------------------------------------------------	----

## 제4차 PGM세계전문인선교대회 KIMNET 공동주관 제3회 PGM선교사 집중훈련

2018년 10월 10일(수) 오후 6시 - 12일(금) 오후 10시      2018년 10월 10일(수) 오전 9시 - 14일(주일) 오후 1시

**지역교회를 통한 전문인을 세우자!**

지역집회	현장실습
10월 10일(수)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이준섭 선교사 PGM 선교사 City Campus 사역
10월 11일(목) 임현수 목사 큰빛교회 원로목사	고대은 선교사 성은지 선교사 PGM 선교사 다민족교회계직사역
10월 12일(금) 김용훈 목사 열린문장로교회	

주강사진						
호성기 목사 필라 안디옥교회 PGM 국제대표	양준길 목사 필그림선교회 PGM 1대 국제이사장	송상철 목사 새안광로교회	김아브라함 선교사 UBF 국제대표	허연행 목사 프라미스코회	임무영 목사 현미장교회	Ray Park 목사 Journey of Faith Church
노제이슨 목사 캐나다 큰빛교회	John Choi 목사 Dallas Baptist Univ.	안요셉 선교사 UBF	이재환 선교사 Come Mission 국제대표	백은영 목사 필라 영생교회	김은범 목사 사랑의글로벌비전교회 PGM 국제이사	조영태 선교사 PGM 선교사 영국 웨일즈
고훈 목사 뉴욕 하운교회 PGM 3대 국제이사장	김기석 목사 그린스보로제일장로교회 PGM 정책이사	양중연 목사 PGM 선교사 Hispanic Ministry	박상수 선교사 PGM 선교사 Here & Now 사역	김현영 선교사 PGM 선교사 국제미래추진전문사역	안사무엘 목사 PGM KM 훈련부장	Jay Kim 권도사 PGM EM 훈련부장

제4차세계전문인선교대회	제3차선교사집중훈련
대상 지역교회 선교리더 및 선교관심자, 목회자, 신학생, 해외 및 Here & Now 선교사 등	대상 파송 및 집중선교훈련을 원하는 전문인선교사 (스포츠, 교육, 의료, 미용, 어린이, VBS, 금융, 건축사역 등)
등록 1차 8월 31일 마감: 개인 \$250(2인 1실), 지역참가 \$70 2차 9월 20일 마감: 개인 \$300(2인 1실), 지역참가 \$100	등록 개인 \$300(2인 1실), 부부(2인) \$500 지역참가 \$100
훈련 내용 • 10월 선교의제4물결, PGM 4대 핵심가치 (디아스포라선교, Here & Now선교, 전문인선교, 지역교회중심선교) • 11-12일 하나님의 쓰임받은 신/구약 평신도를, 전문인과 비전문선교사의 동반관계, 차세대 전문인선교전략, 전문인리더십, 전문인의 전략적 배치, 전문인선교전략과대체, 해외 및 Here & Now 전문인선교사역, 13일 티완전도훈련, Here & Now 현장실습	• 14일 수료 및 마송식

PGM 선교사로 파송되어 PGM 전문사역(지)에 격·간접적으로 참여 해외 및 Here & Now선교지에서의 전문인선교전략에 관한 30여개의 선택강의 29개국에 파송된 238명 PGM 선교사님들의 생생한 선교현장을 체험

장소 \_ 필라 안디옥교회 (1 Antioch Ave. Conshohocken, PA 19428) | 문의 \_ admin@pgmusa.org / www.pgmusa.org

**PGM 20th** 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 세계전문인선교회 1998-2018



# 지속적 참여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라!

## 리더십제널, 담임목사모임(Senior Pastor Central)이 강조하는 영적으로 건강한 소그룹 형성 토대 소개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과 목적, 삶의 변화에 굶주려 있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구조가 바로 소그룹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 크게, 동시에 더 작게 성장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복음 전도를 통해서 더 크게 성장

하고, 교제라는 틀에서는 작아져야 한다. 소그룹은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성경 말씀 안에서 균형 잡힌 건강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다(Why Churches Should Euthanize Small Groups).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소그룹 즉 다락방, 목장, 구역, 셀을 이끄는 인도자들이 자주 던지는 질문이다. 소그룹 인도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그 그룹 안의 구성원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그룹 구성원들을 그저 참여하도록 하는데 그치지 않고, 소그룹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내



## 교회는 복음전도로 더 크게, 교제 틀에선 작아져야 배운 진리 실천하는 현장으로 영적 성장 토대 마련

가 담당하고 있는 소그룹이 성숙해지도록 이끌려면, 소그룹 인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점진적으로 생각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라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고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대영교회일수록, 예배만 참석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인도는 먼저 소그룹 구성원들이 소그룹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여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그룹 구성원들이 종종 하는 불평들은 아이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다는 것, 모르는 사람과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 아직 신앙이 약해서 소그룹에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들이다. 그러나 소그룹 인도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이런 장애물들이 더 이상 영적 성장과 소그룹 참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를 돌보는 일이 필요한 구성원을 위해서 짝을 지어 모임 장소의 다른 방에서 아이를 돌보게 한다면, 가족 구성원들이나 다른 소그룹과 협력해 그런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그런 방법들이다.

인간관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이들에게는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비밀 보장의 원칙을 상기시킨다. 또한 소그룹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슈퍼 크리스찬들의 집합체가 아닌 계속 함께 배워나가는 사람들의 모임임을 깨닫게 함으로 정서적 장애물도 제거하도록 한다. 소그룹 인도자들은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식별하고 제거해야 한다.

공통분모대로 그룹을 구성하라

영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소그룹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그룹을 형성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공통분모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공통분모가 있는 사람들로 소그룹을 구성하면 참여도가 높아지며 소그룹이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소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공통분모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

△공통된 문화(비슷한 언어나 연령대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소그룹) △공통된 지역(같은 동네나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의 소그룹) △공통된 일정(모임 일자와 시간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그 중에 자신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으로 묶인 소

그룹) △공통된 관심사(특정한 가정 문제나 사회적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묶인 소그룹) △공통된 위기(건강, 재정, 직장 등 공통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소그룹) △공통된 결단(특정 사역이나 프로젝트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사람들끼리의 소그룹) 등 다양한 요소들로 묶인 소그룹은 구성원들의 참여도를 높이며 영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사도행전 5:42 프로세스

사도행전 5장 4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소그룹 인도자는 구성원이 단순히 주일예배에 출석하는 것으로 영적 성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예배와 대그룹에서 배우는 진리들을 실제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현장을 소그룹을 통해 훈련받을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우리는 영적 성장에 대한 진리들을 이해하는 ‘지식적인 측면을 수용하면서, 나아가 소그룹을 통해 ‘가슴’으로 그 진리들을 실천하며 적용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소그룹 구성원들이 성경을 통해 배우고 깨닫는 삶의 목적들을 이해할 뿐 아니라, 소그룹을 통해 계속 훈련하여 결국 개인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머리에서 멈추어 있는데 그치지 말고 성도들이 진리를 살 수 있는 기회의 현장으로 소그룹을 이끌어야 한다.

소그룹 인도자는 구성원들의 소그룹의 활동이 그들이 배우고 깨달은 진리를 살아내고 적용하는 현장이 되도록 만들어 간다.

결국 소그룹 구성원들의 영적 성장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소그룹 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

(3편으로 계속)



## 시론

### 천냥 빛을 지는 언어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지난 3월, 20년 만에 ABC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돌아온 시트콤 프로그램으로 ‘로잔 아줌마’(Roseanne)가 있습니다. TV부분 드라마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끌고 있었고, 오는 9월에 또 다른 시리즈를 제작할 계획도 세웠을 만큼 잘 나가던 인기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9일, 대표적인 주연 출연자이며 프로그램의 이름이기도 한 ‘로잔’ 아줌마가 인종차별적인 트윗을 한 이후 심각한 역반응이 나왔고 결국 이 프로그램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폐지되었습니다.

주인공 로잔이 트위터에 올린 내용을 직역하면 “무슬림 형제와 흑성탈출을 한 원숭이가 아기를 낳았다 = vj”

얼핏 들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혼란스럽지만 쉽게 한국식으로 번역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극단주의적인 회교신앙을 가진 사람과 흑성탈출 영화에 나오는 원숭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vj’라는 것입니다. ‘흑성탈출 영화에 나오는 원숭이’라는 표현은 ‘흑인’을 비하시켜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흑인과 극단주의 회교도 신자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 vj인데, vj는 다음 아닌 지난 오바마 대통령 때 자문위원이었던 흑인여성 ‘발레리 재럿’을 말하고 있습니다.

트윗을 하고 난 후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의 글을 올렸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트윗을 한 로잔 아줌마는 농담 삼아 웃자고 트윗을 했다고 하지만 그 트윗을 읽은 많은 사람들은 웃음보다는 마음에 상처와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아닌,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피부색깔에 근거하여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는 인종차별은 미국사회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흑인이다, 아시아인이다, 남미인이다 라는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각 인종을 멸시하고 깔보는 그런 표현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시아인 계열의 사람들을 얕잡아 부르면서 사용하는 ‘짚머신 눈’(chinky eyes)과 같은 표현은 아시아인 출신 사람들에게는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우리말에 ‘말 한 마디로 천냥 빛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언어를 아름답게 사용해서 천냥 빛을 갚게 된 경우보다는 오히려 ‘천냥 빛을 지는 경우’를 더 자주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상대의 아픈 부분을 들춰내어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슬쩍 던지고, 그래서 상대가 아파하면 ‘그냥 웃자고 해본 말’이라고 돌려대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일을 하다가 상대의 누르고 싶을 때, 상대의 기를 약간 꺾고 싶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현이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일을 하다가 상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간청하면서 하는 표현입니다. 글로 표현할 땐 ‘물음표’나 ‘느낌표’의 차이이지만 말로 표현할 때는 억양을 통해서 그 뜻을 전달하게 됩니다. 억양을 통해서 우리는 따뜻함을 전할 때도 있고 차갑고 매서운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우리 언어의 억양도 엄밀하게 점검해 보면 우리 가슴의 온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따뜻한 가슴에서는 따뜻한 억양이 차가운 가슴에서는 차가운 억양의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 마디가 사실은 단순한 ‘말 한 마디’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가슴을 채우고 있고 삶을 이끌고 있는 가치관과 인격의 외적인 표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훌륭한 언어생활을 하는 이들은 말 그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 자신의 인격과 가치관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인격과 가치관이 묻어있지 않은 듣기에만 좋은 ‘말’로써는 결코 천냥 빛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말의 중요함이 단순히 언어표현기술의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만들어 내는 사람의 깊고 진실한 인격의 외적인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할 때 우리 주변은 훨씬 더 믿을 만하고 마음을 감싸 주는 언어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한번은 한 날 뜨거운 피아박을 맞으며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물 길러왔던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 여성의 최대약점은 ‘여러 번에 걸친 이혼경력과 가정사’였습니다. 그 때 주님은 그 여인의 아픈 과거와 현재를 아시고 그것을 사용해서 그 여인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멸시하기보다 오히려 사랑과 용서와 복음이 필요한 삶의 영역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다른 사람들이 쉽게 취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인격자로 진실하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이런 주님의 언어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언어 그 자체보다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바른 성품과 진실함과 사랑의 모습에 더 초점을 두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언어를 통해 천냥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echoi82@yahoo.com

<b>미주크리스천신문</b> The Korean Christian Press		<b>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b> <b>편집국장: 유원정</b>	
<b>L.A. Office</b>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865-0009(대 표) (323)865-9025(광고국) Fax:(323)865-0056(편집국) (323)8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		<b>N.Y. Office</b>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현수막 | 천막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프로모션 상품

디자인서비스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롤업배너

벽걸이 포스터

미디어벽

현수막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미주한인교회 송구영신예배

2017.12.31 주일 저녁 10시 30분 비전센터 분당

2018 교회표어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교회

성탄 축하예배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 영적 성장에 도움 안 되면 교회 떠난다!

(1면에서 계속)

그러나 이들 중 15%가 지난 6개월 동안 같은 지역내 타 교회를 방문할 것을 고려했고, 이들 중 54%가 벌써 다른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다. 따라서 교회를 바꿀 것을 고려하는 사람들의 엑소더스가 가시화되게 된다.

한마디로, 교회를 바꾸려고 하는 주 원인은 다름 아닌 교회의 본질 즉 신학이 더 이상 자신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설문에 응답한 교인들은 자신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교회에 다음과 같은 도움들을 달라고 답했다:

- △27%는 하나님과 성경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 △20%는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알려 달라.
- △19%는 교회가 더 많은 성경 공부 그룹들을 제공해 달라.
- △16%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서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 △14%는 교회가 자신들의 영적 문제이나 물음에 대해 답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달라.

△13%는 교회가 평신도들이 섬길 수 있는 사역 현장들을 만들어 달라.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목회자들이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



는 점이, 바로 이들이 바라는 도움들에서 나타났다.

결국 현재 미국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중 15% 정도가 교회를 바꿀 것을 고려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실제로, 교회를 떠나게 되면, 교회는 힘들게 될 수 있다. 미국내 교회 평균 교인이 100명 미만이기엔 10-15명 교인이 떠나면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결론으로, '교회와 사역의 성공'은 과거 3B, 즉 교회성도(Bodies), 예산(Budget), 교회 건물(Building)이라는 외면적 영역으로 평가받아왔다. 그래서 교회는 숫자

를 세는 것에 기준을 많이 두었지만 그 결과,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여기에 "종교적인 Nones"까지 증가하고 있고, 밀레니엄 세대를 대표로 젊은 세대는 기존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한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교인 중 15%는 다른 교회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변혁적으로 체질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고, 또 이미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변화하는 교회들은 교인들을 구경꾼의 위치에서 벗어나 직접 행동하도록 만들고, 교회가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올바른 가치를 부여잡고, 전통이 돼버린 프로그램이나 습관화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고 자신의 교회 환경에 가장 적합한 사역을 하면서 교회와 지역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한 준비가 있다!

(1면에서 계속)

모든 목회자는 교회의 복잡한 일을 다루기 위해서는 몇몇 일반적인 경영이나 리더십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는 교회 개척이나 기존 교회에도 적용된다.

2. 여러 목회자와 유대관계를 맺어야 한다.

세속적인 세상과 똑같이, 좋은 관계를 맺으면 교회 지위에도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 일자리를 확보하거나 다른 교회에서 배울 것도 있겠지만, 동료와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해 혼자 외로이 목회를 하지 않게 된다. 언제라도 '전화번호만 누르면' 들어주고 함께 할 친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

무조건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 교회를 다니는 신학교 학생이지만 봉사할 곳을 찾지 않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된다. 이들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 훈련 중이다. 언젠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자원봉사를 하지 않고 있다. 언젠가 직무상의 의무 없이도 교회를 섬기는 이들의 희생을 이해해야 한다.



4. 세상의 일을 해야 한다.

파트타임이라도 공부하는 중간에 세상 사람들과 일을 해야 한다. 인생과 일, 사람들에 대한 귀중한 원리를 배울 것이다. 또한 목회하게 될 세상 사람들을 더 잘 공감할 수 있게 된다. 항상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러시는데...'라고 생각해

하며 가르침을 무시하는 이들이 있다.

5. 사람들을 돕거나 상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한다.

하기 전에, 젊은 목회자가 멘토 세우기를 적극 추천한다. 나이가 지긋해서 지혜가 필요한 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멘토가 있어야 한다.

7.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몇몇 동성 친구와 가까운 관계를 맺어서 주님과 가족, 교회, 스스로를 의탁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이 목회자일 필요는 없고, 목회의 압박감과 의무를 이해하는 이들이면 된다.

더불어 목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목회자가 되라고 부르셨다면, 한시라도 지체하지 말고 모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계속해서 교육을 듣고, 이런 제안을 따라야 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목회자가 될 방법을 찾아 현장 훈련을 받아야 한다. 아마도 가족이나, 요양원 또는 교도소 방문을 통해서도 이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수도 있고, 돈이 생기지는 않을 수 있지만, 눈길이 가는 사람들을 돌볼 기회는 많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마음과 정신을 준비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다. 이 목록 외에 추가할 게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다.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목회자는 다친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이다. 어떤 기본적인 질문과 요약, 상담 기술을 이해하는 것은 목회에 중요하고 목회자의 가르침을 더 강화시킬 것이다.

6. 멘토를 만들어야 한다.

목회 초반에, 아니면 목회 시작도

을 통해 영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이런 다양한 접근들과 방향성을 통해 우리의 소그룹이 더 깊은 영적 성장과 건강을 경험하기를 소원한다.

은 방법 중 하나가 된다. 또한 소그룹은 구성원들이 새롭게 이해하고 배우고 있는 진리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현장으로써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

### 문화 칼럼



김기원 목사

장위제일교회 원로, 목양 헬프 대표

### 본질에서 변질이 세속화다

새 사람 되고 개혁되는 것은 계속적인 변화이다. 날마다 거짓을 버리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된다. 그러나 세속화는 본질에서 변질되는 것이다. 아무리 영양이 있는 음식이라도 변질되면 먹어서 안 된다. 똑같은 것인데 숙성시키면 몸의 유익한 것이 된다. 이것을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 알의 밀알인데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변화이다. 변질은 쉽지만 변화는 깨어 경성하고 정신 차려야 하고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말세의 세속화는 사랑의 변질이다. 세상에 가장 더럽고 악한 것이 사랑의 변질이다. 사랑의 변질은 개인주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다. 성경은 이웃을 내 몸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고, 그렇게 하려면 무제한의 용서와 희생을 감수해야 됨을 교훈하였다.

사랑의 모델은 예수님이시다. 변질된 사랑은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이들은 철저한 개인주의요, 이기주의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이었다. 독재자는 개인주의의 모델이다. 교회의 세속화도 개인주의이다. 이웃 교회의 피해나 상처 나와 상관없다. 복지 선교나 약한 교회를 도울 리 없다. 있다면 체면치레일 뿐이다.

특히 선교에 관심이 없다. 물론 각 교회 역할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랑하고 봉사하고 도우는 일, 생명구원, 생명사랑의 핵심 코드는 바꿀 수 없는 핵심목표요 사역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변질된 사랑 이것이 말세의 세속화이며 다음은 돈사랑, 즉 맘몬주의이다.

돈을 생명보다. 인격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황금만능주의에 빠지는 것이 세속화이다. 소아시아 7교회 중 책망만 받은 두 교회가 부자도시 교회였다는 것, 명심해야 된다. 교회는 오래 되었을 때, 커졌을 때, 부해졌을 때 세속화 되었다는 역사적 증거를 무시하지 말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물질은 필요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 오늘날 물질이 가치의 기준이 되고, 물질 앞에 굴복하다시피 하는 사상이나 흐름은 세속화의 주요인이다. 오늘날 세상의 사건사고나 모든 부정부패의 8-90%가 돈과 관련된 문제이다. 교회의 세속화도 돈과 관련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가? 말세의 세속화는 변질된 사랑, 돈사랑, 황금만능주의, 유물주의이다.

말세의 세속화는 쾌락사랑이다. 세상은 쾌락 문화가 만연하다. 쾌락을 위한 알코올 문화, 동성애, 마약, 흡연, 타락된 친교 모임들이 얼마나 많은가? 타락된 성 문화는 가정을 파괴하고, 에이즈나 더러운 불치병을 만연하게 하고 있다. 이런 쾌락중심 문화를 영상이나, 방송이 총동시시키고, 청년들을 쾌락에 중독 시키기도 하고, 못된 정부는 악용하기도 한다.

우리가 반성해보고 진단할 것은 이런 타락된 쾌락 문화에 길들여져 교회의 예배나 프로그램 까지도 오염시켜서 좋지 못한 방법으로 교인이나 청년들에게 호객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예루살렘성전은 예수님이 보실 때 다 쫓아내고 싶은 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70년 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고 산산 조각이 날 성전에 가득히 모인 무리가 부흥인가? 타락된 쾌락중심의 삶, 그리고 교회가 변질된 교회이며, 세속화된 교회이다.

사랑의 변질, 개인주의 이기주의, 돈사랑, 맘몬주의, 그리고 쾌락주의의 쾌락사랑 또는 중독이다. 사랑의 변질, 인격의 변질, 물질의 악용, 타락된 쾌락의 중독 이것이 말세에 교회에 침투된 세속화이다.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본질이다.

kkiwon2002@hanmail.net

(2면에서 계속)

따라서 소그룹 인도자는 소그룹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고, 그런 방해물들을 함

께 헤쳐 나가며 이겨나가도록 한다. 소그룹 참여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통분모를 형성하는 영역을 찾아 그렇게 소그룹을 구성하는 것도 이런 토양을 준비하는 좋

은 방법 중 하나가 된다. 또한 소그룹은 구성원들이 새롭게 이해하고 배우고 있는 진리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현장으로써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

을 통해 영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이런 다양한 접근들과 방향성을 통해 우리의 소그룹이 더 깊은 영적 성장과 건강을 경험하기를 소원한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 동부개혁신앙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ast.org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신앙로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들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2018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회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어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서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8년 8월 31일(금) 오후6시
- 3 입학시험 : 2018년 9월 1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강부흥회 : 2018년 9월 4일(화) - 9월 6일(목) 저녁 8시
- 5 문의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 동부개혁신앙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 젓갈싸'

'젓갈싸'는 '젓지만 잘 싸웠다'의 줄임말로 주로 운동 경기에 애용되는 신조어입니다. 올해 러시아 월드컵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워서 2014년 우승팀이자 '세계 1위'인 독일을 이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올해 한국 대표팀은 친선만고 끝에 9회 연속 월드컵 진출의 성

과를 거두었지만 조별리그에서 1승2패의 부진한 성적으로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팀은 그들을 향한 국민들과 해외 동포들의 '젓갈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표팀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올해 한국 대표팀은 친선만고 끝에 9회 연속 월드컵 진출의 성

으로 '젓갈싸'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도 최고 스타는 골키퍼 조현우 선수입니다. 그는 이번 월드컵 전까지는 별로 주목받지 못한 선수였습니다. 어떤 언론사도 세 번째 골키퍼의 상임인 23번을 등에 달은 그가, K리그 '꼴찌' 팀인 대구 FC 소속인 그가, 스스로도 대표팀의 꼴찌라고 여긴 조현우 선수가 스웨덴과의 첫 경기부터 주전 골키퍼 김승규를 대신해서 출전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조 선수 자신도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세계 랭킹 1위인 독일 전차군단과의 경기에서 단 한 점도 내주지 않는 눈부신 활약을 했고, 그 결과 그 경기의 맨 오브 더 매치(MOM)에 선정되었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할 때, 한국대표팀이 세계무대에서 우승을 목표로 싸우기에는 아직 실력이 부족합니다. 비록 이번엔 '최강' 독일을 이

기는 이번을 일으켰고, 또 대표팀에 유럽 리그에서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있지만, 아직 남이나 유럽 팀들과 비교하여 확연한 실력 차이가 난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과 해외 동포들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과 동포들은 한국대표팀이 끝까지 투혼을 발휘하여 '젓갈싸'경기를 펼치기를 기대합니다. '젓갈싸'(젓지만 잘 싸웠다)를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잘싸'(이겼다, 잘 싸웠다)의 날이 올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신앙생활을 경주로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은 운동경기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도 우리들은 자주 영적 싸움에서 패배를 맞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빠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다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자 노력하지만 작은 스트레스에 쉽게 짜증과 화를 내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면 믿음의 진보가 없고 영적으로 제자리걸음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살다가도 조그마한 일에 낙심하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 않은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좌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 그러다가도 조금만 일이 잘 풀리면 우쭐하고 쉽게 교만에 빠지는 우리들...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이 끝까지 투혼을 발휘하여 영적 싸움을 싸우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대한민국 축구선수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싸우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젓갈싸'는 우리에게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도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싸우면 됩니다. 잊지 마세요!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여 승리를 선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와 나의 힘과 나의 방패 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돕음을 얻었다"(시28:7).

## 푸/른/초/장

장영춘 목사  
(본지 발행인, 퀸즈장로교회 원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유언을 받은 사람은 유언을 남긴 분을 위하여 또는 자기를 위하여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 유언을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유언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값을 치르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이 마지막 명령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지상명령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복음서의 총 결론이며 사도행전의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그리스도를 목격할 자와 만민의 체함을 가진 자이며 용기와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을 지니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예수를 위한 수고와 고난, 죽음을 각오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즐거움이 되고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며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 1. 시대적인 요청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실천되어야 할 때입니다.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이나 도덕적인 부패, 사교와 미신, 그리고 사상적, 영적 대혼란 또는 공산주의의 위험 등이 오늘 인류에게 심적 공허, 불안, 공포, 자포자기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박하고 긴급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전도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 2. 전도의 지상명령을 주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며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1)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장악하고 계신 분입니다. (1)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2)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고 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3)그를 믿는 개인이나 가정, 사회, 단체에 최대의 변혁을 일으킨 혁명가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최대의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과 국가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9-10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

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며 그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

르게 되는 것입니다.

2) 전도의 지상명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전도의 지상명령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전파하여 할 절대적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3.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

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수행해야 할 지상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봅시다.

#### 1)가라(Go)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명령인 동시에 격려이기도 합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각 나라와 방언과 족속의 영역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는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에는 "사거리로" 가

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의 제자"라고 하였는데 이는 천국의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는 핍박을 당한 후에 데베로 가서 전도하여 많은 생명을 등록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두 번째 내용인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 완전히 이치를 사며 천국시대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 3)세례를 주라(Baptize)

세례를 준다라는 말은 '씻다' '잠그다' '묵욕하다' '뿌리다'의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례를 주고 네 번째 영화에 이르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만왕의 왕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부활하며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받은 우리는 참으로 복되고 영예로운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상명령을 성공시킬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불행히도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 보장의 약속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든든한 보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보장해주셨습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은 매일 함께하신다는 뜻입니다. 좋은 날이나 낯은 날이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평화의 때나 환난의 때나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다 옥중에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보장은 "세상 끝 날까지"입니다. 세상 끝 날이란 지구나 인류의 종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되는 재림 시기까지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영원하"라는 보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전도의 명령을 실천할 때 우리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실로 우리는 아무 것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실천하여 우리 각자에게 맡겨 주신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도, 마태가 앉아있던 세관으로도, 38년 된 병자가 시름없이 누워있는 베데스다 못가에도 가라고 하십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 산호섬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저 남방 모든 나라 못 백성 사는 데로도 가라는 말입니다. 저 무슬림 지역이나 북한 즉 갈 수 있는 모든 영역으로 가야 합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복음은 어디든 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땅 위의 모든 인류는 다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 2) 제자를 삼으라 (Make Disciples)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제자를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제자를 삼으라"는 '마태두오'라는 말은 가르치고 훈련시켜 학습하는 학생으로서 명부에 올리라는 뜻입니다. 마

태복음 15장 32절에는 "천국의 제자"라고 하였는데 이는 천국의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는 핍박을 당한 후에 데베로 가서 전도하여 많은 생명을 등록시켰다는 말입니다.

#### 4)가르치라(Teach)

본문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가르쳐'라는 말 '디다스코'는 자라게 한다, 성장시키다 라는 말로 양육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의 내용은 사중적인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먼저 가야하고 두 번째 등록시켜야 하고 세 번째 등록시킨 자에게 세

<h2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2> <h1 style="text-align: center;">기타지역 교회</h1>				<h3>갈보리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h3>몽고메리교회</h3> <p>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 새벽기도회: 오전 7:30 Tel: (610)222-0691, 267-471-7777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h3>벅스카운티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홍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h3>벤틀교회</h3> <p>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W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p>	<h3>보스턴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영양, 영성, 종교음악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ixkinton, MA 01748</p>	<h3>샬롯장로교회</h3> <p>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오전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영양, 영성, 종교음악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704)877-68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h3>시애틀평광장장로교회</h3> <p>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오전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eattle.org</p>	<h3>안디옥교회</h3> <p>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p>	<h3>알칸사 제자들과교회</h3> <p>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3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ijas.com</p>	<h3>앵커리지열린문교회</h3> <p>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h3>엘파소열린문교회</h3>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양)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915)751-1490, 사택: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h3>영생장로교회</h3> <p>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h3>킬린온누리교회</h3> <p>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538-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h3>워싱턴아시아장로교회</h3> <p>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c.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h3>주 예수교회</h3> <p>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h3>타코마 한인장로교회</h3> <p>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양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수요예배: 오후 7시 45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 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comncc.com</p>	<h3>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h3> <p>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www.kucg.org</p>



교회가 세상의 대안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을 맡기 전에 먼저 교회는 그 자체로 빛이 되고 그 자체로 소금이 되어야 한다.

로 된 빛과 소금이 된다면 교회자체를 이루는 성도와 그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전영역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Ecclesia-Synagogu

교회가 살아야 다 사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 교회가 살면 나라와 가정이 살고 세상을 살리게 될 것이다.

있기 때문이다. 예배에 있어 성전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배자들의 중심점이 되었고 그것이 상징적으로나 모형론(Typology)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고서는 교회의 본질로서 예배의 회복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과 성전과 교회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된 단과 제사의 시작은 노아와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모세를 세워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시고 "거기서 내가 만나리라" 하신 뒤에 성막의 제사로 드러지기 시작했다.

르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지만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자유주의 신학이나 개혁신학이 극단적인 부분만이 조명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가톨릭의 경우 성전을 거룩하게 보았기 때문에 성전을 우상화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을 정도였다. 따라서 종교개혁주의자들은 이미 주님이 허물어 버린 성전은 성경적으로 전혀 필요 없다고 한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현재 매주 같이 운동을 하는 친구와 어떤 일로 인해 우정에 약간의 금이 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예수는 믿지만 자기 주관과 고집이 세고 절대 손해 보지 않으려는 성격 때문에 부닥칠 때가 많고 그러다 보면 의견 충돌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은데 그와 오랜 친구관계를 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과연 친구의 우정이란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A: 예, 좋은 질문입니다. 베이컨(Francis Bacon)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우정은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군중 속에 고독'이라고 진정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고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오랜 친구 사이 끊는 것은 좋지 않아... 화해하도록

꺼어지기가 쉽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근세의 철학자였던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3가지로 진단했습니다. 첫째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인격적으로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적으로 믿어주어도 우리를 사이에 언제가 그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긴장감이 있다.

우리가 인간으로 서로를 볼 때 얼마나 많은 단점들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만나고 서로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서로 기도하며 무릎을 꿇을 때 진정 사랑하는 놀라운 우정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상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교회가 살면 다 삽니다

-성전과 교회, 예배는 하나님 사랑, 사회적 사랑

가 세상의 대안이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때 세상은 변화된다.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를 위해 헌신하라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혹자가 조롱하듯 교회주의자가 아닌가?

의 구원론적인 개념을 강조하며 말한다.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이 교회다.

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후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세워졌다.

맞보는 것과 같다. 만약 지상에서의 성전이라는 중심점이 없다면 예배당 무용론이 등장할 것이며 교회라는 중심점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죄인 된 인간들이 자기 편리대로 아무렇게나 예배할 것이 분명하다.

세상을 말하기 전에 교회의 온전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제대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절로 세상은 좋아진다.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지, 저 산골짜기 암자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의 참된 회복을 위하여 교회는 'Ecclesia'와 더불어 'Synagogue'의 개념을 같이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교회를 구약에 나타난 성전의 원형으로 보는가 하는 문제로서, 성경전체를 통괄적으로 보는 중요한 시각과 교회중심의 목회철학에 가장 중요한 방점을 찍는 것과 같다.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이다

교회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며,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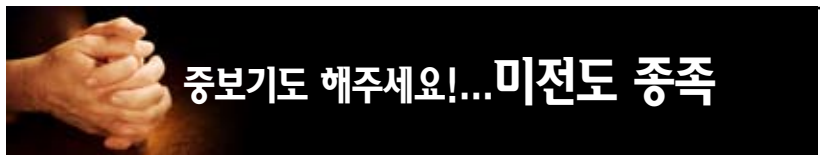
주님께 좋은 일하는 교회와 성도

교회를 향해 나오지 않고, 모이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빛과 소금의 참 맛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9면으로 계속)

Midwest University advertisement featuring a banner with the university name, a list of degree programs (Bachelor of Music, Master of Music, Doctor of Musical Ar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dmissions and campus locations.





###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라오스의 푸노이(Punoi)



푸노이족은 풍살리(Phongsali) 부근인 라오스 북부 중앙지역에 거주한다. 이들은 티벳-버어마계이며 몽골계의 생김새를 지닌다. 푸노이족이 비수(Bisu), 피엔(Pyen), 묘이(Mpi) 족과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빼고는 이들에 대해 알려진 바는 매우 적다. 푸노이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만 그들이 살고 있는 라오스 북부 지방에 대한 자료와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웃한 종족들을 참고하여 몇몇 사실들을 추측

해볼 수 있다. 다른 티벳-버어마계 종족들과 같이, 푸노이족도 중국 남부 지방에서 라오스 북쪽 지방으로 이동하여 왔다. 푸노이족의 언어는 로로(Lolo) 언어군에 속하는 언어인데, 로로족은 8-9세기 중국 남부에서 지배적인 세력을 형성했었으나, 9세기 초 동남아시아로 이주했다. 라오스는 베트남, 러시아, 중국의 정치 경쟁에 휘말려 왔었다. 많은 외세의 침략과 내전의 결과로, 라오스 국민들은 사회적 혼란과 격변의 시대를 살아왔다. 베트남은 라오스에게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 삶의 모습

푸노이족과 같은 고산 부족들은 농사도 지으면서 동시에 사냥도 하고 임산물들을 채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푸노이 농부들은 이동하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 마을을 형성해서 생활하지 못한다. 높은 지역에 사는 고산 종족들은 자신들의 관습과 전통을 견고하게 확립하였다. 반면, 저지대 가까이 사는 종족들은 이웃하는 마을과 제한적이기는 하나 교역하는 일에 관여하게 되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들을 습득하게 된다. 푸노이 마을은 몇몇 집들이 모인 작은 군집단으로 이루어진다. 가족들은 나무나 대나무로 대말 위에 고상식으로 지어지며, 언덕을 등지고 마을을 형성한다. 푸노이족의 거주 지역은 일반적으로 농지 부근에 위치한다. 가우들이 땅 위에 고상식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가끔 짐짓(승), 돼지, 염소 등이 집 아래 부분에 생긴 공간에서 자유롭게 키워진다. 푸노이족의 마을이 대체로

부족 혈통을 따라 조직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적 구조는 가족 단위를 기본으로 삼는다. 라오스 북부 지방은 아편을 생산하는 양귀비가 자라는데 이상적인 기후다. 전통적으로 부족민들은 아편을 약으로, 현금을 벌어들이거나 물물 교환하는 수단으로 마약으로 사용해왔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마약은 북쪽으로 이동해 중국 쪽으로 넘어간다.

#### 신앙

푸노이족은 "정령숭배"와 "조상 숭배"가 혼합된 토속신앙을 지키는 종족이다. 정령숭배는 자연(바람, 강, 나무, 땅 등)이 영혼이나 초자연적 존재와 연관돼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 속에 깃든 영혼들이 식량을 찾고 농사를 짓는데, 병을 치료하고, 위험을 피하 도록 도와준다고 믿는다. 부족민들은 제사와 의식을 통해 초자연적

인 신들이 자신들을 도와주길 기원한다. 조상숭배는 오래전에 죽은 가족과 친척 영혼들에게 축복, 보호, 안내를 구하는 신앙이다. 조상의 영혼들이 살아있고 이들을 먹이고 돌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필요로 하는 것들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한다. 말라리아, 독감, 이질, 폐렴 등이 주요한 보건상의 문제가 되고 있으며, 영양부족 문제는 이미 만연해있다. 유아사망률이 높으며, 평균수명도 짧다. 대부분의 의사를 포함해 많은 엘리트들이 1975년에 라오스를 떠났다. 이것이 새 정부에 큰 부담을 가져왔으며, 마을 진료소와 약국들이 세워지고 거의 모든 지방에서 의료 인력을 길러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마을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가끔 허브와 같은 전통적인 약재

를 치료에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의료진들이 마을마다 주요 보건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엄청난 필요를 다 채우고 있지 못하다.

1970년대에 있었던 베트남전은 라오스 북부 지방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라오스 북부지방에서 상당한 수의 북부 베트남군들이 파테트 라오 공산주의자(pro-Communist Pathet Lao)들과 싸우고 있는 와중에 미군 폭격기들이 폭격을 퍼부었다. 아마도 푸노이족 역시 미군이 폭격한 지역에 남아 있는 잔존 지뢰와 폭탄에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현재 라오스에서는 폭탄제거프로그램이 실시중이나, 푸노이족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는 아직 미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이동 지도팀들이 지뢰에 대한 경계인식을 일깨우고 지뢰를 제거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태국 동굴 소년 부모의 감사고백

“하나님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분이 못하실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God is great love and there's nothing He can't do).”



지옥 같은 지하 동굴에 갇혔다가 17일 만에 기적처럼 구조된 태국 유소년 축구팀의 부모가 아들 생환의 기쁨을 안겨준 하나님에게 감사했다.

영국의 더 크리스천 인스티튜트(CI)는 지난 14일 구조된 유소년 축구팀원 중 한 명이 크리스천이며 이 소년의 부모가 아들의 무사 귀환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년은 기독교 NGO인 캠페션(캐나다)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캠페션은 가난으로 고통 받는 전 세계 25개국 어린이들이 바르게 성인으로 자랄 수 있게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소년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소년의 부모는 아들이 구조되자 “아들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것은 사랑”이라고 고백했다.

소년의 부모는 치앙라이 지역에 있는 매사이 그레이스 교회에 다니고 있다. 이들은 앞서 축구팀원과 코치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에도 “13명 전원이 살아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이완 맥그리거 영국 선교사는 “전원이 구조된 것은 기적이며 우리 기도의 결과”라면서 “소년들이 무사히 사는 소식에 기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태국 유소년 축구팀 ‘무 뻬’(야생 멧돼지)와 코치 등 13명은 지난달 23일 동굴 탈출에 나섰다. 영국 동굴탐사 전문가 2명은 지난 2일 동굴 입구에서 5km쯤 떨어진 지점에서 실종된 선수들을 발견했다. 태국의 네이비실 대원과 전 세계에서 몰려든 구조대원 등 100여명은 사투를 벌인 끝에 축구팀 전원을 무사히 동굴 밖으로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 “파키스탄인 비비 위해 기도해 주세요”

9년. 파키스탄 여성 아시아 비비(47·사진)가 기독교 신앙을 고백했다는 이유로 감옥생활을 한 기간이다.



기독교 선교단체인 한국순교자의소리(대표 현숙 폴리 목사)는 15일 “다섯 아이의 어머니이자 마을의 유일한 기독교인이었던 비비가 2009년 6월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이듬해 파키스탄 법원에서 사형과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라고 밝혔다.

현숙 폴리 목사는 “전 세계 교회가 이 상황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비비의 목소리를 냈다. 잇따른 항의 덕분에 비비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라고 관심을 요청했다.

폴리 목사는 “파키스탄에서 극소수인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박해의 공포 속에 살고 있다”며 “교육권을 비롯한 기본 인권을 거부당한 채 빈곤하게 살도록 강요받는다”고 전했다.

체포되기 전 비비는 ‘무함마드 이드리스’라는 무슬림 소유의 농장에서 일했다. 그런데 함께 일하던 무슬림 여성들이 그녀에게 기독교를 떠나 이슬람으로 돌아오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하루는 종교와 관련해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비비는 격론 끝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무함마드는 우리를 위해 해 준 것이 뭐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무슬림 여성들은 이 말에 분노했고 폭력을 행사했다. 형사고발을 당했고 1년 5개월 뒤 비비는 신성모독법 위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

전 세계 기독교 단체와 기독교인은 그녀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폴리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파키스탄에서 핍박받는 형제자매들에 관심을 갖게 하셨다”며 “비비는 자신의 나라와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계속 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비의 남편은 순교자의소리 등 기독교 단체들을 통해 “아내는 자신이 풀려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녀의 얼굴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서려 있다”며 “그녀는 자신이 가진 기독교 신앙을 잠시 자랑스러워 한다.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파키스탄은 “신성모독법”으로 악명 높다. 이 나라 형법 제295조는 “특정 종교에 대한 적대적 선동” ‘코란 훼손’ ‘예언자 무함마드 모독’ 등에 대해 엄하게 처벌한다. 하지만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폴리 목사는 “기독교인은 이슬람이나 코란, 무함마드 모독 혐의로 기소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들은 종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이 유죄 판결을 받고 가혹한 처벌을 당하기도 한다”며 “파키스탄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안전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다.

#### 생지옥에 갇힌 나이지리아 크리스천들

아프리카 서부 대서양 연안의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대규모 학살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를 두고 ‘완전한 학살(Pure Genocide)’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크리스천포스트는 최근 ‘나이지리아에서의 완전한 학살: 공격 당하는 기독교인들(Pure Genocide in Nigeria: Christians Under Attack)’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나이지리아 기독교인의 끔찍한 상황을 전했다.

나이지리아는 무슬림과 기독교인의 비율이 1대 1로 비슷하다. 나라의 북쪽은 무슬림 지역이고 동쪽과 남쪽은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다. 중간 지대는 무슬림과 기독교인들이 섞여 있다.

기독교인을 겨냥한 테러와 학살은 무슬림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종교 청소’라는 명목으로 기독교인들을 향한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으며 2002년 결성된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보코 하람은 지금까지 수천명의 기독교인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보코하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나이지리아에서는 지금까지 이슬람교를 믿는 유목민족인 풀라니 족(Fulani herdsmen)의 공격으로 어린이와 여성, 노인 등 6000명의 기독교인이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됐다. 무슬림의 공격은 여성이나 어린이 등 노약자를 가리지 않는다. 아직 미성년인 소녀들을 납치해 강간하고 임신시킨 뒤 강제로 이슬람 개종을 강요하는 문제도 속출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들은 이를 놓고 ‘생지옥(Living Hell)’ 혹은 ‘완전한 학살’이라고 부르며 정부를 향해 이 같은 종교 학살을 중단시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기독교인들을 향한 공격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정부는 기독교인을 겨냥한 학살이 과장됐으며 왜곡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예수 보혈’ 성만찬 때 포도주? 포도즙?

예수님의 보혈이자 새 언약을 상징하는 성만찬의 포도주. 알코올을 금하는 교회에서 포도주를 마셔도 괜찮을까. 혹시 포



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을 마셔야 하는 건 아닐까. 정답은 둘 다라고 미션라이프가 보도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후의 만찬으로 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잔에 부어 마신다고 돼 있다.

기독교 주요 교단에서 아담세레가 확산되면서 성만찬 의례 때 포도주를 써야 하는지 포도즙을 써야 하는지도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단에 따라 알코올이 포함된 포도주를 쓰곤 하는데 의례 기능이 강조됐다고 하지만 어린이에게 부적절하다. 힘겹게 알코올의 존중을 이겨내면서 신앙을 회복한 성인에게도 금주 결심이 무너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의 헌법은 포도주 대신 ‘포도즙’을 성만찬 음료로 규정하고 있다. 포도즙이 발효되면 포도주이므로 포도즙이 포도주를 포괄하는 개념이란 해석도 있다. 물론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알코올 중독은 예수님 당대에 드물었고 대량소비 사회가 시작된 현대에 본격화됐다.

김명실 영남신학대 예배학 교수는 10일 “알코올이 있느냐 없느냐는 본질이 아니며, 예수님의 언약을 반추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장통합 헌법 역시 ‘포도주(혹은 포도즙)’ 등으로 선택지를 넣어 적절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만찬 때 쓸 포도즙의 용도로 1869년 미국교회에서 개발된 음료인 웰치스(Welch's)다. 감리교 목사이자 치료과사였던 토머스 브론펜 웰치의 이름에서 따왔다. 웰치 목사는 다른 교회에서도 성만찬 때 포도주 대신 포도즙을 쓸 것을 권했다.

그의 아들 찰스 웰치는 아버지의 포도즙에 ‘웰치스 포도주스(Welch's Grape Juice)’라는 이름을 붙여 1893년 만국 박람회에 출품했고 폭발적 반응을 끌어들였다. 20세기 미국의 금주법 시대는 웰치스에 더욱 날개를 달아줬다. 지금은 발표성 와인 느낌을 내도록 탄산을 섞은 웰치스도 나온다.

유럽에선 화이트 와인을 종종 성만찬에 쓴다. 김 교수는 “성찬은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나누는 의미 때문에 컬러 심볼리즘(Color Symbolism)도 중요하다”면서 “그리스도 보혈의 상징이니 레드가 더 의례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찬 이외에 애찬(Love Feast)도 있다. 성경에는 간소한 성찬과 정식 식사에 가까운 애찬이 특별히 구별되지 않았지만,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사건)’에서도 보이듯 상 위에 포도즙과 빵 외에 다른 음식도 있었다. 예장통합은 성찬과의 혼동을 우려해 현재 애찬을 금하고 있지만, 존 웨슬리가 이끈 감리교단은 정식 식사인 애찬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영국에선 애찬을 훠서와 비스킷으로 진행한다”면서 “우리도 의례를 정한 뒤 구역예배 등에서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류샤, 8년 만에 풀린 자유...

류샤가 자유의 몸이 됐다. 중국 공안 당국이 2010년 가택 연금을 실시한지 8년 만이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고 류샤오보(劉曉波)의 부인 류샤(劉霞)가 중국을 떠나 10일 독일 베를린에 도착했다. 류샤는 민주화 운동가인 남편 류샤오보가 2010년 10월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직후부터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가택 연금 처분을 받아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상태였다.

그녀는 식료품을 사러 가는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베이징에 있는 집 밖에 나갈 수 없었다. 이때에도 반드시 중국 공안이 따라 붙어 언론인을 비롯한 외부 인과의 접촉을 차단했다.

류샤는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정부의 불법 연금 조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는 글을 올렸다. 트위터를 올린 전날 노르웨이 외교관들이 류샤를 도와주기 위해 찾아왔으나 공안이 막았다고 한다.

류샤는 지난해 남편의 사망 후 외국으로 이주하길 원했으나, 장례식 직후 중국 당국에 의해 윈난(雲南)성 다리(大理) 시로 강제 여행을 가면서 외부와 40여 일간 연락이 끊겼다.

이후 베이징 자택으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외출이

어려웠다. 류샤는 극심한 슬픔에 빠져 우울증을 겪었고, 최근에는 몸이 안 좋아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류샤의 독일행 보도에 대해 “류샤가 본인의 바람대로 치료를 받으러 독일에 간다”고 말했다.

그동안 류샤 출국 허용 요구에 귀를 막아온 중국 당국이 돌연 태도를 바꾼 배경에는 미국-중국 무역전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독일 등 유럽의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다수의 중국 네티즌은 “그녀가 마침내 자유를 도모했다. 앞으로 좋은 삶을 살기를 기원한다”며 그녀를 응원했다.

류샤와 류샤오보는 1996년에 결혼했다. 당시 류샤오보는 법원으로부터 노동 개조 3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었다. 류샤오보는 2008년 12월 세계인권헌법의 ‘08헌장’을 발표해 공산당 일당체제 종식 등 광범위한 민주개혁을 요구했다. 그 이유로 2009년 12월 국가전복선동죄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간암으로 별세했다. 류샤오보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타국에 귀화하거나 망명하지 않고 노벨상을 받은 첫 번째 중국인이다.

‘08헌장’에서 류샤오보는 중국의 일당독재체제가 반우파운동,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톈안먼 사건 등을 통해 민간의 권리를 탄압하고 수천만의 생명을 앗아간 것을 비판했다. 아울러 개혁 없이 장기 지속한 독재체제와 기형적 경제발전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부딪친 오늘의 중국 사회를 구하기 위해서는 현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08헌장은 혁신의 기본 이념으로서 자유, 인권, 평등, 공화, 민주, 입헌을 제시했다.

#### “北 강선우라늄 농축시설, 평양외곽 천리마구역에”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로 알려진 강선(Kangson) 단지의 위치는 평양 외곽 천리마구역이라고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매트’가 14일 보도했다.



그동안 북한의 비밀 핵시설 존재를 보도한 미 언론들도 강선의 정확한 위치는 지목하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평안북도로 추측하기도 했다.

디플로매트는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센터와 함께 위성사진 등 공개된 자료를 분석해 강선 단지의 위치를 찾아냈으며 미 정부 당국자도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디플로매트에 따르면 강선 단지는 천리마구역의 동쪽 끝부분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평양과 서해 남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에서 1km가량 떨어져 있다. 고 김일성 주석의 생가로 알려진 만경대에서 5km 거리다.

디플로매트는 “강선 단지가 평양에 가깝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선 단지가 북한의 핵 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강선 단지는 북한의 비밀 핵 시설 중 한 곳이며, 영변 핵 시설보다 빠른 2000년대 초반부터 건설되기 시작했다고 디플로매트는 전했다.

강선 단지는 ‘주기체 원심분리기 캐스케이드’가 들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건물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 건물 메인 홀의 크기는 50m 길이에 110m 폭이다. 위성사진을 토대로 분석한 것어서 높이는 알 수가 없다. 지하시설의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디플로매트는 “북한이 강선에서 처음으로 기체 원심분리기 시설을 가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정부당국이 강선 단지의 우라늄 농축 역량을 영변 핵시설의 2배로 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유엔은 남북 군(軍) 통신선 복구를 위한 물자 지원을 대북 제재 예외조치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군 통신선 복구에 필요한 연료와 차량 등을 일시적으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예외를 인정받은 품목은 광케이블과 버스, 트럭, 가솔린 등 51개 품목으로 알려졌다.

이후 베이징 자택으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외출이



중세의 전쟁

십자군운동은 중세 시대를 대변하는 전쟁이었다. 1095년에 시작하여 1291년까지, 약 2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일어났다. 일반적으로 십자군 운동을 2세기에 걸쳐 벌어진 전쟁이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전투가 지속된 것은 아니었다. 수차례에 걸쳐 간헐적으로 벌어진 여러 번의 원정이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 1096-1099년, 2차 1147-1149년, 3차 1189-1192년, 4차 1202-1204년, 5차 1217-1221년, 6차 1228-1229년, 7차 1248-1254년, 8차 1270년 등이다. 실제 전쟁이 일어났던 연도수를 합치면 그리 많지는 않다. 여러 세대에 걸쳐 잇을 만하면 다시 발발하기를 수차례 반복한 것이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전쟁은 성지 회복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십자군이란 이름에 걸맞게 신앙의 이름으로 시작된 전쟁이었지만, 매우 인간적인 다른 동기들과 맞물려 본질을 잃어버린 채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모든 전쟁이 그렇지만 십자군 원정은 각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며 생겨났다. 먼저 원정군을 보낸 서방 교회와 국가의 변화를 손꼽을 수 있다. 동방 진출은 각자의 다른 이유로 유혹거리였다.

그 뿐 아니라, 동방 역시 제국의 정치적 정황과 이슬람 세력의 팽창과 함께 생겨난 새로운 상황으로 인하여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각 원정마다 양상이 달랐으며 일관성이 결여되었는데, 시간의 흐름과 함께 처음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목적으로부터 서서히 이탈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십자군 운동은 결국 기독교 역사를 지울 수 없는 수차례의 오점을 남기며 패배로 끝났다.

예루살렘 정복

1096년, 제1차 십자군이 시작되었을 때 엄청난 숫자가 전쟁에 가담하였다. 그들이 싸워야했던 전쟁은 국경을 맞두고 있는 적을 대항하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었다. 장거리 원정이 요구되었다.

지원자들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그룹은 1097년에 출발한, 무질서한 군중이란 표현이 더욱 적합한 백만 명의 지원자들이다. 주로 농부 출신이었던 그들에게 서방에서 동방 성지 예루살렘에까지 가는 것조차 그들에게는 매우 큰일이였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를 통과하여야했고, 오랜 시간에 걸쳐 이동하는 동안 필요한 식량을 채워야했다. 이렇다 할 조직도 없었고 누군가의 지도하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일만한 형편이 아니었다.

결과 그들은 약탈과 살육을 자행한 폭도로서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심지어 1096년에는 한 독일인 영주의 명령에 의하여 유대인 학살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잔학한 모습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십자군은 물론 기독교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들이 콘스탄티노플 성 밖에 도착한 후에도 일부는 몰래 성안으로 들어가 약탈과 방화를 자행하였을 뿐 아니라, 여인들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등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일삼았다.

그들은 광신적인 열정으로 십자군 원정에 지원하였지만 목적지로 가는 길목에서 무고한 자들을 무차별하게 살육하다니, 결국 그들도 대부분 죽음으로 최후를 맞게 되었다.

다른 그룹은 1097년에 육지와 해상으로 나눠서 목적지를 향하였던 60만 명으로 구

닥으며 1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콘라드 3세와 프랑스의 루이 7세를 중심으로 2차 십자군 원정이 이뤄졌다. 두 사람은 그 당시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수도사 성 베나드의 열정적인 설교로 인하여 십자군 원정에 대한 관심을 갖게

십자군 운동의 근본적인 목적이 희석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있다면, 로마 교황청에서 재원마련을 위해 면죄부를 팔았다는 것이다. 면죄부는 문자 그대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증거이다. 결국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돈만 지불하면 대리인을 통해서도 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다. 4차 십자군 운동은 이미 강력한 권력을 지녔던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십자군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지배하고자하는 열망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동방 지역에 제국주의적 식민주의에 근거한 서방 제국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원정을 계획하였다. 다시 말해, 성지 예루살렘을 이교도의 손으로부터 빼앗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콘스탄티노플 함락과 어린이 십자군 등, 4차 십자군 운동의 내용은 앞서 설명한 구체적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5차 십자군 운동은 이노센트 3세의 뒤를 이어 교황이 된 호노리오 3세가 신성로마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2세로 하여금 십자군을 주도하게 하였다. 교황이 죽고 후임이 즉위를 하였지만, 황제는 여러 핑계를 대며 출정을 주저하였다. 그러던 중 프레드리히 2세가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1228년에 독자적으로 십자군 원정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황은 자신의 명령을 무시하고 불복종한 것에 분개하여, 서방 교회에게 십자군 참여를 거부하도록 선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드리히 2세는 뛰어난 외교술을 동원하여 무월로 예루살렘, 베들레헴과 헤안지역을 되찾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244년 다시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탈환한 뒤에는, 기독교인의 손으로부터 영원히 상실되었다.

6차와 7차 십자군 원정은 성도들이 소망을 걸고 있었던 프랑스의 왕 루이 9세의 신앙심에 의하여 이뤄졌다. 그는 수도원적 경건과 군사적 용맹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중병에 걸렸던 자신이 병에서 낫는다면 십자군 원정을 실행하겠다고 하였는데, 1248년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친히 앞장에 서서 이를 감행한 것이다. 이집트에서 전투에 패하여도 질병과 기아까지 덮쳤으며, 결국 루이 9세도 포로로 잡혔다가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났다.

1270년, 노인이 된 루이 9세가 다시 십자군 원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전염병으로 사망함으로써 2세기 동안 진행되었던 마지막 십자군 원정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15)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성지회복 목적 십자군전쟁, 인간적 동기와 맞물려 기독교사에 오점 2세기 동안 8차에 걸쳐 지속...큰 혼동과 아픔, 후유증 남기고 끝나

성된 주력 부대이다. 이들은 전쟁에 능한 군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장 먼저 니케야를 점령한 뒤 동방 제국 황제 알렉시우스 1세에게 넘겨주었다. 결국 그들은 원정의 목적인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 성공했다. 1099년 6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그 숫자는 자료에 따라 2만에서 4만정도로 보고 있다.

제 1차 공격은 필사적인 저항으로 인하여 실패하였다. 그 후 7월 15일, 2차 공격을 시도하여 결국 예루살렘을 그들의 손안에 넣게 되었다. 승리감에 취한 그들은 성안에 있던 유대인과 회교도인들을 대대적으로 살육하여, 거리에 시체들이 즐비하였

었다. 버나드는 로마 교황이 선택한 설교자였다. 그는 마지막 심판의 두려움에 대한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원정을 통해 이교도를 살해하는 자는 확실한 보상을 받는다고 외쳤다. 1147년, 콘라드 3세와 루이 7세가 각각 7만 명의 십자군들과 함께 출발하였다. 두 왕은 다마스쿠스 공격에 합류하였으나 지도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못하여 결국 실패하게 되었다. 결국 그들은 1년 만에 철수하게 되었는데, 원정을 주도하던 자들 사이에 생겨난 불화가 패전이 안겨다준 어려움보다 더욱 치명적인 문제였다.

허락하였다. 이와 같이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가톨릭교회의 타락을 지적할 때 그 중심에 있었던 면죄부 판매는 아주 오래전에 시작된 것이었다.

전쟁의 목적과 의지

1189년, 살라딘에게 다시 함락된 예루살렘을 향하여 3차 십자군이 원정의 길에 나섰다. 이 소식이 서방 세계에 전해졌다. 2차 원정에 패배한 뒤 침체에 빠졌던 그들이 다시 열정이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신성로마제국의 프리드리히 1세, 프랑스의 필립 2세 영국의 헨리 2세가 이에 참가하

전쟁패배 원인은 군사적 능력이 아닌 전쟁에 임하는 인간의 영적 상태 급속도로 타락하는 현대 교회 재생의 길 찾기는 역사적 교훈에서 얻길

으며, 심지어 회당에 그들을 몰아넣고 교회의 이름으로 불을 질러 그들을 죽였으며, 성전 경내에 있는 자들도 학살하였다. 심지어 성전 지역에서 학살당한 사람들의 피가 사람들의 무릎과 말의 고삐까지 찰라는 기록도 있다. 아무쪼록 그들의 승리로 인하여, 순례자들이 성지를 찾는 일에 지장을 없애려는 목적을 달성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1099년에 예루살렘에 라틴 정부가 수립되어 1187년까지 지속되게 되었다.

새로운 관심

1044년, 에데사(현재 터키 우르파 지역)가 셀주크 터키에 의해 점령을 당했다는 소식이 서방에 들렸다. 이곳은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북부 시리아로 가는 중요한 도로를 보호했던 지역으로 기독교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교회가 불에

2차 원정에 동참했던 시칠리아의 왕 로저 2세를 중간에 두고 콘라드 3세는 적대적이었고, 이에 반하여 루이 7세는 우호적 관계를 맺었다. 공공의 적인 이슬람을 물리치려는 의지로 인하여 시작된 원정이었지만, 지도자들의 분열로 인하여 도리어 긴장이 고조되었다. 나아가서 실패의 책임을 성 베나드에게 돌리면서 그를 거짓을 말하는 선동가라고 몰아쳤다. 그러나 버나드는 원정 실패를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이라고 표명하였다.

그들이 버나드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십자군에 가담하는 지원자들이 반드시 거룩한 목적을 공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죄를 약속해주는 특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참여한 살인자, 사기꾼, 그리고 도둑들이 지도자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함으로써 더욱더 사기를 떨어뜨리고 의적으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였다. 후에 헨리 2세의 후계자인 리처드가 전체를 지도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지적에 진을 구축하였으나 결국 공격을 하지 못하고 발발하였다.

이슬람을 대상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원정에 올랐으나, 식민지 확보라는 국익과 개인적 야망으로 인해 서로 불신을 갖게 되었다. 특히 오만하였던 리처드의 잔인성과 개인욕심으로 서방 정치인들의 단합된 마음을 기대할 수 없었다.

3차 원정의 특징은 기사들로 구성되어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것이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살라딘의 지도력이 뛰어나거나 사라센 왕국의 군사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십자군 기사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종교적 열심이 결여가 되었기에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십자군 운동이, 이와 같이 국가와 개인의 이득을 위한 매개체로 전락된 것이

전쟁의 끝

중세의 중요한 시점에 약 2세기 동안 지속된 십자군 전쟁은 큰 혼동과 아픔, 그리고 후유증을 남기고 끝났다. 결국 십자군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군사적 원인에서만 찾으려하는 것은 우매한 일이다. 문제는 전쟁에 임하는 인간의 영적 상태였다. 이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 인간은 매우 약하고 저속하다는 것이다. 부패한 인간은 주님의 이름을 앞에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보다,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데 관심을 쏟아 왔다.

현대 교회가 급속한 속도로 타락하고 있다. 재생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와 갈등 뒤에 무엇이 숨어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심과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에 대한 반성을 가능하게 한다.

covenantcho@yahoo.com

Large advertisement for '해외교회' (Overseas Churches) featuring a banner with two angels and a grid of church listings. The banner text reads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교회'. The grid lists various churches such as Kumran, Dundeon, Roman, Saein, Seungmun, Seongsil, Seungil, and others, each with a pastor's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 청교도 신앙 (55) 교회와 국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4)청교도의 정치적 영향에 대한 현대적인 적용

우리는 사회에 대하여 배타적인 자세를 갖기보다는 문화 변혁적인 입장을 취하고, 사회의 질서를 깨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며, 개인 주의적인 가치관보다는 공동체의 경건을 중시하므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간 소외가 극심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동체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질

우리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로마교회와 연합하여 재편을 하거나, 또는 로마교회에 의한 흡수병합에 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지체들이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투표를 해야 할 때가 온다면, 그 문제에 관한 가르침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발견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확실히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위

를 만들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20-22)."

바로 그 이유들 때문에 교회와 국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사실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여러 세기의 역사는 이 문제가 다루기에 쉬운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다. 필자는 이 문제를 아주 단순화시키려고 노력한다.

첫 번째 관점은 교회와 국가가 하나라는 관점을 하는 관점이다. 또 두 번째 관점은 그 둘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교회와 국가가 하나라는 관점을 생각해보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처

Constantine)가 소위 회심한 사건이다. 그 황제는 주후 325년 경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노라고 스스로 공언했다. 그가 그렇게 주장한 중요한 이유들은 정치적인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자기 회심했다는 사실을 공언했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로마제국의 공식적인 종교로 만들되, 로마 제국을 자기와 함께 기독교 회로 끌어 들였던 것이다.

황제들이 그와 같은 종류의 일을 할 수 있었다. 물론 그것을 반대한 개인들도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로마제국은 기독교적이 되었다. 그 순간부터 교회와 국가가 하나라는 가르침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콘스탄틴 황제는 국가와 교회를 합병하였고, 자기가 황제로 행사하는 권세가 교회 안에서도 통한다고 주장했고 그것이 한 동안의 입장이 되었다.

콘스탄틴 이후 교회와 국가가 하나라는 것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 나타났다. 로마 제국의 붕괴와 함께 로마가톨릭

##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 미련한 사랑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리신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루 종일 찬양이 고장 난 레코드처럼 입에서 머무른다. 주님의 사랑이 그리운 게다.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 왜 그리 얼굴이 어둡냐고 물으면 웃을 일이 별로 없다고.... 그렇다. 기쁜 일이 있어 웃는다면 세상에 웃고 살 일이 뭐 그리 많겠는가.... 세상에 진리가 없어서 어두운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문제는 그 진리를 찾지 못해 고개 숙이고 주눅이 들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밭에서 일하던 농부는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자,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렇다. 과연 내 삶을 다 드러서 살 수 있는 보화는 뭘까? 그것은 내 영이 하나님과 하나임을 깨닫는 진리가 아닐까? 그래서 그 신성의 물줄기에 연결되어있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마 세상을 다 가진 것이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엄청난 영적인 복이 이미 자신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눈을 떠서 보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수두룩한데 보이지 않으니.... 이 순간만 지나면 모든 것이 잘 될거야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살아간다.

우리 사람은 흠의 면지로 만든 가장 연약한 존재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니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 길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생명)을 받는 거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뒷모습을 보여 주시면서 나를 보는 자는 죽는다고 했다.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내가 죽어야 그때부터 주님이 내 안에서 주권노릇을 하실 수 있으시니 말이다.

그렇다. 복음은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복음은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것을 살리려고 아들을 죽이신 그 미련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리라. 미련한 엄마는 강도인 아들을 면회하러 가서도 그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한없이 운다. 우리 눈에는 범죄자이지만 그 어머니의 눈에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렇다. 사랑은 사람을 미련하게 만든다. 그 미련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 우리 가슴에 넣으면,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넣어주면 평생 주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 텐데 말이다.

팔아가 어제 내가 오버한 행동 때문에 화를 버럭 냈다. "엄마! stop please!" 나이가 들면 사랑도 조절이 안 되나 보다 하는 생각에 마음이 씩씩해졌다. 그런데 조금 후에 팔아가 전화를 해서 흐느껴 운다. "엄마 미안해! 엄마는 나 힘들까봐 도와준 건데... 난 엄마가 힘든 게 싫어서..." "그럼 엄마가 미련해서... 널 너무 사랑해서..."

지난주에 성경공부하면서 이런 숙제를 내 주었다. '자기 마음 알아주기' 숙제다. 한주동안 계속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 알아주기이다. '너 지금 남편 때문에 화가 나는구나' '너 지금 쉬고 싶구나'... 사람은 누가 내 맘을 알아줄 때 지위가 일어나는데 누가 밤낮 주석으로 변하는 내 맘을 알아줄까.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그렇다. 감정이 치우 받으면 그 감정을 놓을 수 있으리라. 문제에 불들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병에 불들리면 병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내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부정적인 에너지 덩어리가 되면 그땐 마음의 병에게 불들리게 되리라.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그때그때 알아주고 조절해서 쌓이지 않도록 그 감정을 놓아버리는 훈련을 하면 어떨까?

그렇다.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쏟아부어주시는 미련한 사랑에 접촉된 사람은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세상에서 주위들은 말들에 현혹되지 않으리라. 그것이 진리 안에 거하며 진자 평화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changsamo1020@gmail.com

## 콘스탄틴 시대부터 교회와 국가를 하나로 보는 시각 생겨 로마제국 쇠망후 교회/국가 하나로 보고 교회주도권 강조

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경건한 사회를 건설하는 일에 앞장서며, 인간의 죄성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청교도의 "언택 위키의 도시"의 이상은 미국 정치에 놀라운 영향을 끼쳤고 또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며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사회를 이루어가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에 대한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1. 교회와 국가에 대한 관점들: 청교도 전후의 역사적 과정

#### 1) 교회와 국가와 관계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이제부터는 교회와 국가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과 역사에 대해 광범위한 시대를 포괄하여 약술하고자 한다. 종교 개혁 시대에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다. 청교도가 탄생한 영국의 시민전쟁(Civil War) 기간 동안과 공화정 시대(Common-wealth)의 기간, 다시 말하면 17세기에는 더욱 더 그러했다.

에 있는 권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어야 하며, 모종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도 속해 있고 국가에도 속해 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교회에 속하고 각각 여러 지상 나라나 왕국의 시민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로부터 우리 자신을 떼어낼 수가 없다. 우리가 앞뒤 세금을 내야 하고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둘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 분명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교회와 국가는 어떤 요점들에 있어서 동일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역사와 온 우주에 존재하는 만유의 머리도 되신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마28:18)" 에베소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한 입장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발전 과정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이 주제를 접근하는데 유익한 방식이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성경의 가르침을 척도로 삼아 수세기에 걸쳐 일어난 일들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교회와 국가가 하나라는 관점

(1) 콘스탄틴 시대와 그 후의 입장  
이 관점은 아주 오래 전에 나온 관점으로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 3세기 동안 기독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도 교회와 국가가 하나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 그 기간 동안 권력을 잡고 있었던 것은 로마제국으로서 이교도 제국이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하나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 신앙 성경 속에 있는 교회를 보면, 그것은 하나의 작은 단체였고, 큰 이교도 사회 속에서 여기 저기 작은 수가 모여 있는 것에 불과하였다. 국가와 함께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역사의 전체 진로를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콘스탄틴 황제(Emperor

교회와 국가가 교회에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교회와 국가가 하나이고 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로마제국의 쇠망후에 발전된 가르침이다. 황제들이 힘이 있을 때에는 국가도 힘이 있었고, 국가는 교회를 따라 오도록 지시하였다.

콘스탄틴 황제는 교회의 연합적인 회의를 소집하였는데, 예를 들어 니케아 신경(Nicene Creed, 주후 381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작성되고 채택된 신조)이 나오게 된 배경에 바로 그 콘스탄틴 황제가 있었다. 그는 교회를 소집하였고, 교회가 어떠한 하여야 된다는 것을 다소 지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로마제국의 몰락 후에 교회가 이전에 국가가 행사했던 권력들을 자기에게 들렸던 것이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생겨나게 된 교황들도 국가에 대한 최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 후 서구에서 그 관점이 그런 식으로 발전했다. 교회가 로마제국의 아주 많은 여러 지방에서 그 세력을 발휘했다. 그 후 다른 많은 나라들과 국가들에서도 그렇게 하였다. 교회는 자기가 이 모든 국가들의 주관자들을 다스릴 최상의 권위와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younsuklee@hotmail.com

# 십만명 구국 기도자 모임

▶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위기에서 건질 '10만명 기도의 용사들'을 부르십니다!!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나는 우파다 나는 좌파다, 그것도 상관 없습니다. 왜냐구요?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는 어느 나라, 어느 사회나 공존하고, 또 공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에 있다. 없다! 강하다, 약하다...그것도 어느 나라, 어느 사회나 공존하고 또 공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북한 세습독재 지지, 주사파 만안 안됩니다. ▶왜냐구요? 그들은 김일성 주의자들로... 김일성 세습 독재는 교회를 다 불살라 버리고, 목사들을 다 죽이고, 성도들을 다 말살하고, 북한의 온 땅을 김일성, 김정일 동상(우상)으로 가득 채우고 백성들을 그 우상에 절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 세습 독재를 따르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구요? 그 김일성 세습 독재는 결국 남한을 정복하여 북한의 체제로 만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들과 성도들은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할 것이고, 교회들은 불 태워질 것이며, 기독교는 완전히 말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처다 아니나다의 논리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기증한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영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요10:10 이 기준입니다. '도적(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영혼들을)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예수님)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결국은 마귀인가? 예수님인가? 선택을 말합니다.

▶그리고요 성도들이여, 깨어서,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합니다. 마귀의 세력은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감'이 없으니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연고다, 믿음으로 선포한 산이 옮겨진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습니다. 참새 한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없이 땅에 떨어 질수 없고, 바람과 바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며, 이것을 일깨우는 것이 목사들의 사명입니다.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믿음과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핵무기 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도의 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참으로 파멸의 위기가 여러번 있었지만 우리 민족은 기도로 나라를 살렸습니다.

일제 식민지의 위기, 6.25 남침의 위기, 보고개개의 위기, 카터의 미군 철수의 위기 등등...그 때마다 한강 백사장의 10만명의 기도, 여의도 광장의 백만명의 기도, 산 마다,산 속 마다 기도원의 기도, 교회마다 새벽기도가, 나라를 살렸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매일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구원해 달라고 매달려 기도할 사람 10만명에 참여 하십시오.

비록 강대국들 속에서, 격한 파도에서, 허우적 거러 뒤,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반드시 이 시대에 쓰임받는 민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있는 우리에게 다윗의 믿음과 승리를 주옵소서...기도해야 합니다.

하루 밤에 18만5천명을 송장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허스기하여 믿음과 기도로...매달려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로 지금은 한강 백사장에, 여의도 광장에 모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시간과 장소에서...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의 핵 무기 위협에서 구원해 주시고,복의 불은 세력에서 견져주시도록,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십만명,백만명이 일어나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 될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50명, 100명, 500명, 1000명, 2000명 등으로 SNS로 기도의 용사들을 모으며...매 예배때 마다...매 집회 때 마다 부르짖어 매 달려 기도함으로.. 믿음과 기도로 나라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십시오.

마귀는 거짓 영입니다. 저들은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남의 핵에 끌려 다니게 되고,결국 남의 핵에 정복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의 기독교는 말살 될 것이요 결국 남북전쟁을 왕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태워져, 파괴된 사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보고 깨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시사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 "십만명 구국 기도자 모임"

1.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2. 한반도에 핵무기가 완전히 제거 되도록.
3. 한.미 동맹이 더욱 견고해 지도록.
4. 미군이 절대로 철수하지 않도록.
5. 북음으로 남, 북이 하나가 되도록.
6. 재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민족이 되도록.

다음의 기도로 한국을, 한반도를 살립니다.





목회서신



여승훈 목사

환난 가운데 즐거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디.” 열 자녀들과 전 재산을 다 잃은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

의 진실성 여부를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평탄한 생활을 지내는 동안에는 신앙의 진실성을 가능하게 하는...

신앙의 모습에 스스로 실망하게 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려나오는 참 신앙을 갈망하게 한다. 집이 반석위에 세워진 집인지...

회원 단합, 휴식, 목회에 힘 얻는 시간...

노스캐롤라이나교협 여름수련회

노스캐롤라이나(NC) 한인교회협의회 여름수련회가 7월 2일부터 4일까지 Pine Knoll Shores에 있는 Trinity Center에서 열렸다. NC교협은 매년 수련회를 통해 회원 간의 단합과 신앙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목회 상담 및 휴식과 위로를 통해 목회에 크게 힘을 얻는 시간을 갖고 있다.



NC교협 여름수련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리게 해 지나온 과거를 한 사람씩 스토리 텔링케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물줄기에 우리가 있음을 다시 깨닫고 고백케 만드는 깊은 은혜의 시간을 인도했다. 4일 새벽예배는 홍중수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홍 목사는 “목회의 어려움이 결국은 나를 반성하고 더욱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과정”이었음을 전함으로 큰 은혜를 끼쳤다.

집회에 참석한 나성근 목사는 “밤 깊은 줄 모르고 나누는, 서로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때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나누는 큰 위로와 확신의 시간”이었다며 “회원 중에는 꼭 짜인 목회 스케줄 중에도 무리해서 참여하기도 했지만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있어서 더욱 의미 있는 리트릿이 됐”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NC교협)



선한정지기운동본부 이사장 취임 및 자선음악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한기형 이사장 취임 및 자선음악회

선한정지기운동본부, 봉사/교육/문화/훈련 사역

선한정지기운동본부 이사장 취임 및 자선음악회가 15일 오후 4시 30분 LA한인침례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열렸다. 한기형 이사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는 선한정지기 운동을 전개하게 돼 감사하다”며 “이 운동을 통해 사회와 후손들에게 좋은 선례를 남기는 단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선한정지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

겠다”고 말했다. 선한정지기운동은 봉사, 교육, 문화, 훈련이라는 4가지 주제(봉사: 불우한 이웃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시스템 운영, 교육(Education): 한국과 미국, 어제와 오늘의 역사와 정체성의 교육, 문화(Culture): 한국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문화를 접목시키는 일, 훈련(Training): 끊임없이 훈련시켜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 일)를

가지고 펼쳐게 된다. 이우형 목사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옥세철 장로(홀리클럽 회장)가 대표기도했으며 진복일 선교사가 특별 찬양한 후 민종기 목사(총현선교회교회 담임)가 “다시 사마리아인”(눅10:25-37)이라는 주제로 설교했으며 이태환 목사(남가주 원로목사회 증경회장) 축도로 마쳤다.

백중운 목사 사회로 열린 2부 취임식은 김용훈 장로가 기도했으며 박성근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이사장 추대 및 이사 임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홍보대사 임명, 한기형 목사 취임사, 이정근 목사(유니온교회 원로) 축사, 정해진 목사(남가주교회 증경회장)가 격려사했으며 윤일홍 목사(로스펠리츠교회 원로)가 축복 기도했다. 정대철 목사의 진행으로 열린 3부 자선음악회는 Olivenbaum 양상블, 소프라노 황혜경, 이병삼 목사와 지윤자 사모의 국악 2중주, 테너 오위영 목사, 최용순 오토하프 연주자의 무대가 펼쳐졌다. (박준호 기자)



제17회 미션스쿨 동문합창제에서 송실, 송의 혼성 합창단이 찬양하고 있다

소망소사이어티 우물선교 지원

제17회 미션스쿨 동문합창제 성황

제17회 미션스쿨 동문합창제가 14일 오후 7시 총현선교회(담임 민종기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미션스쿨동문합창단 연합회가 주최하고 금란여중교 미션콤파이어(단

장 한순자)가 주관한 이번 합창제는 소망소사이어티의 우물선교를 위해 열렸다. 금란여중 교목을 역임한 정영길 목사(소망소사이어티 이사)의 개회

기도로 열린 찬양제는 남가주 경신코랄(단장 심재문·지휘 장진영), 정신 동문 코라스(단장 박혜경·지휘 한호정), 남가주 이화여고 동창합창단(단장 장영희·지휘 민재희), 배재코랄(단장 남문현·지휘 유의철), 송실송의 혼성합창단(단장 김영일·박선옥, 지휘 이영두), 남가주 대광OB코랄(단장 한영·지휘 강민석), 금란여중교 미션 콤파이어(단장 한순

자·지휘 서은희)가 참여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했다. 이날 찬양제는 소망소사이어티 이사장인 유분자 장로가 인사말을 전했다. 미션스쿨동문합창연합회에서 소망소사이어티에 선교비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오석 목사(나성평화교회) 축도로 찬양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5면에서 계속) 사회적인 구제활동과 선행은 할지 몰라도 자신의 옳음의 가치관을 따라 나뉠환자 시문의 집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비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이다. 당시의 율령절에 행해지는 구제의 규례를 볼 때에, 나환자가 있던 동네라면 얼마나 가난하고 필절한 형편이겠는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고 말씀이다. 주님은 그 여인에 대해 자신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고, 저의 이름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참된 성도의 존귀함은 주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사는 것이다. 주님의 뜻은 저들이 자신들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당하고 정의로움을 넘어서서, 주님께 좋은 것, 교회에 좋은 것, 복음에 유익한 것, 하나님 나라에 좋은 것으로가 치관이 바뀌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행위의 선함을 가지고서도 빛과 소금됨을 말할 수 있겠지만, 참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행할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님께 좋은 것을 하는 것이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주의 교회에서 드러지는 예배에 온전함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본질이 회복되면, 참된 신자가

나누며 공급하는 은혜가 담을 넘어 세상을 향해 가게 될 것이다. 비로소 참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성도가 될 것이다. 교회사랑만큼 세상에서도 승리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말세 현상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중시하여 더 이상 모이지 않을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므로 교회가 비어가는 현상을 직시해야 한다. 더불어 성경의 예언들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현상화 되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야 한다. 우리는 어찌든지 주의 교회로 모여야 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왜 바쁜 성도들을 자꾸만 교회에 불러두려 하느냐고 주장한다. 모두가 교회에서 사역자처럼 살 수는 없다. 그러나 모두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맞보고 경험하며, 저들이 지향하는 세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부지런히 우리는 말세가 될수록 더욱 힘써 주의 몸된 교회로 모여야 한다. 예전에는 교회에 대해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교회가면 하나님을 만난다. 교회 가면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을 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기복적인 말, 무식한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한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교회를 가지 않고도 사이버 처지 같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한다. 제물

된 현금은 온라인으로 보내면 된다는 것이다. 꼭 몸이 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연 제물이 없이 예배가 성립되는가? 정한시간과 정한장소에서 산 제물(Living Sacrifice)된 몸을 드러 온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열납 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데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영적 금치산자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 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머리가 아프면 교회를 벗어나 먼 여행을 가야 되는가? 교회를 두고서 왜 가정집에 그렇게 모여야 하는가? 주님의 집에서 상담을 하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세상음악이 흐르는 곳에 마주 앉아야 분위기가 편하다고 하는가?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전과 교회에 관한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성경과 교회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성경공부와 설교를 강화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과 삶의 일들을 재편해야 한다. 교회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런 곳이 어디 있으며 또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 밖에 또 어디에 있었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인생의 삶은 복되고 존귀함을 누리게 된다. 그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될 것이다. davidnjon@yahoo.com



LA목회자 아버지학교 기자회견에서 아버지학교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14기 미주 목회자아버지학교 연다

8월 6일 늘푸른선교교회에서

두란노 미주아버지학교(본부장 구정훈) 주최 제 14기 LA목회자아버지학교가 오는 8월 6일 늘푸른선교회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9일 오전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광호 목사의 지도로 시작돼 구정훈 본부장의 아버지학교에 대한 소개 있었다. 이상훈 목사(준비위원장)는 “목회자 중심의 목회자 아버지학교에서 목회자들이 잘 세워져야 우리가 목회하는 교회도 건강한 가정으로 목회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아버지학교 운동본부 측은 “아버지학교의 과정을 목회자들이 먼저 경험해야 한다”며 그 이유는 “건강한 가정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사회와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목회자 아버지의 사명은 하나님의 아들인 이 땅의 아버지들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가정공동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14기 LA목회자 아버지학교 일정은 8월 6일(월)과 7일(화), 그리고 12일(주)이며 ‘아버지의 영향력과 남성, 영성 그리고 사명’이라

는 주제로 진행되며 △아버지의 영향력(강사 광복환 목사) △아버지의 남성(강사 박세현 목사) △아버지의 영성(강사 권준 목사) △아버지의 사명(강사 서건오 목사) 등 4번의 강의가 진행된다. 14기 강사로 참여하게 되는 서건오 목사는 “가정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와 목회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랑은 있지만 어떻게 긍정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아버지학교의 ‘강의와 테이블 나눔’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나누면서 치유와 방향성을 재설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전하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아버지학교는 실추된 아버지들의 위상과 잃어버린 정체성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회복자는 취지로 1995년 한국에서 시작됐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기본 진리로 삼아 가정 공동체를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목회자 가정이 앞장서야 한다는 모토 아래 2000년 4월 처음 시작돼 2017년까지 78회 개설했으며, 31,104명이 수료했다. 제14기 미주아버지학교 참가비는 120달러. ▲문의: (714)808-9191 (기사제공: 목회자아버지학교)



# 동부교계 기사판



## 비블리컬신학교 여름수련회

비블리컬신학교(미씨오 신학교) 한인동문회가 8월 13일(월)부터 15일(수)까지 동문, 재학생 수련회를 갖는다. 장소는 올덴도비전교회(담임 김인기 목사).

## 2018년 성경암송대회

주님의식탁교회(대표 이종선 목사)와 하늘가족(중앙장로교회)가 공동 주최하는 2018년 성경암송대회가 11월 10일(토) 오전 9시 뉴욕신광교회(담임 강주호 목사)에서 열린다. 참가자격은 미국내 한인교회(EM포함) 및 한인 기독교단체 소속으로 연령제한은 없다. 암송성경책은 한국어 성경은 개역한글, 개역개정, 새번역 중, 영어성경은 NIV, KJV, NKJV중 택임. 참가비는 일인당 30달러이며 신청마감은 10월 31일. 최우수상은 상금 800달러와 메달 및 상장이 수여된다. 최연소상과 최고령상, 1, 2, 3등, 장려상, 영어부 1, 2, 3등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수여한다.

## 뉴저지교협 목회자 건강검진

뉴저지교협(회장 윤명호 목사)이 홀리네임 병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 건강 검진이 7월 21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동 병원 메리안 홀에서 열린다. 이날 혈액 검사 내용을 갖고 8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혈액검사, 의료 상담, 체지방 측정, 당뇨와 식이요법과 영양 상담, 특별 검진, 정신건강 상담 등을 하게 된다. 주의사항은 20일 저녁에는 아무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 동부개혁장신 신임학장에 김성국 목사 9일 이사회... 장영춘 전 학장과 교수회 추천

동부개혁장로회 신학교 이사회가 지난 7월 9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 담임·사진)를 신임 학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이사회는 장영춘 학장의 사



임과 김성국 신임 학장 선출 안건을 처리했다. 신임학장으로 선출된 김성국 목사는 그동안 수행해온 이사회 이사장직을 내려놓고 10일부터 학장직에 들어갔으며 이사회는 신임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허경화 부이사장 체제로 운영된다. 신임 학장 선출은 장영춘 전 학장과 교수회의 추천을 받아 이뤄졌다. (기사제공: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 아름다운교회 황인철 목사 사임 통보

뉴욕 롱아일랜드 아름다운교회 황인철 목사(사진)가 7월 8일 "사랑하는 아름다운교회 성도 여러분께"라는 유인물을 통해 갑작스런 사임 통보를 했다고 아넷이 보도했다. 황인철 목사는 유인물에서 "교회 내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아 사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제 자신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며 "하나님



과 김성국 신임 학장 선출 안건을 처리했다. 신임학장으로 선출된 김성국 목사는 그동안 수행해온 이사회 이사장직을 내려놓고 10일부터 학장직에 들어갔으며 이사회는 신임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허경화 부이사장 체제로 운영된다. 신임 학장 선출은 장영춘 전 학장과 교수회의 추천을 받아 이뤄졌다. (기사제공: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 “성령 충만 받고 전도자의 삶 살라”

## 할렐루야 2018 뉴욕복음화대회 폐막

### 12일 이영훈 목사, 뉴욕교계 초청 조찬회 가져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가 지난 11일 저녁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마지막 날 집회에서 뉴욕교협 회장 이만호 목사는 "사모했던 성령이 이 전에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 시간이었다"며 "감사 이영훈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같이 성령으로 변화 받아 뉴욕이 복음화 되고 성령화 되기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날 이영훈 목사는 "성령을 받았느냐?"(행19:1-7)라는 제목의 설

교에서 "교회를 10년 이상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문제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첫째, 성령의 충만은 반드시 반사서 성령의 삶을 살아야 한다. 둘째,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의 역사로 나타나야 한다. 셋째, 성령의 역사는 말씀으로 열매 맺는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성령 충만하면 삶에 기쁨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

자가 사건은 우리 평생의 감사제목이 된다. 또 성령이 말씀과 함께 가지 않으면 이단이 될 수 있다"며 말씀을 강조하고 "21세기를 주도해가는 선교적 교회는 모든 성도가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가 되는 것"이라며 "성령 충만 받아 이 땅에서 복음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영훈 목사는 대회를 마친 다음날인 11일 오전 8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교협 임원들과 여의도순복음교회 찬양팀, 뉴욕교계 기자들을 초청, 조찬회를 가졌다.

이날 이영훈 목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관해서 미국과 북한 등의 관계를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는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며 "폼페이오 장관도 보수 신앙을 가진 분"이라고 말하고 "미국 시민권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한반도 통일에 기도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8.15해방 당시 북한에 있었던 3,500여 교회가 복원되고 북한이 평양까지 될 날을 기대하고 있다"며 평양 심장병원 건립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단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뤄주시길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영훈 목사는 11일 낮 비행기로 귀국했다. (유원정 기자)



할렐루야대회를 마치고 감사 및 진행팀들이 기념촬영 했다.

## “방송매체로 복음전파 사명 다하라”

### CSN GOOD TV 뉴욕지사 개국

CSN GOOD TV 뉴욕지사가 개국했다. GOOD TV는 한국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기독교 TV방송으로, CSN(Christian Streaming Network) 뉴욕지사는 한은경 씨가 사장으로 취임했다. 한은경 사장은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일궈나가기 바란다"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게 시작하지만 앞으로 가장 높은 곳을 꿈꾸며 가장 큰 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겠다"고 인사했다.

안창의 목사 축도, 구순연 국악찬양가수의 특별찬양 순서로 진행했다. 이영훈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마28:18-2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는 성경말씀 그 자체"라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연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 지상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한은경 사장은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일궈나가기 바란다"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게 시작하지만 앞으로 가장 높은 곳을 꿈꾸며 가장 큰 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겠다"고 인사했다. 지난 10일 오후 1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개국예배는 오전 11시 한미지도자기도회를 마치고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김희복 목사와 마리아김의 사회로 주빌리에이션(대표 Rev. Stef)의 찬양 후 전광성 목사의 기도, 김연수 목사의 헌금기도, 여의도순복음교회 권사찬양대의 헌금송, GOOD TV 및 CSN뉴욕지사 홍보영상, 한은경 뉴욕지사 사장의 인사, 김명전 GOOD TV 대표이사의 격려사, 축사 이만호 뉴욕교협회장, 이정환 순복음목사총회 부총회장, 배희남 GLF센터 회장, 권민/이세웅 미주 기독교방송국 사장/이사장, 현재 이클레시오카리나 앙상블의 축주,

이영훈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마28:18-2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는 성경말씀 그 자체"라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연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 지상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복음전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데 방송매체는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방법"이라며 "굿TV 뉴욕지사가 뉴욕에서 뿐 아니라 온 세계로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기 바란다"고 말하고 현재 중국에 기독교의 문이 닫힌 상황을 설명했다. 이영훈 목사는 "굿TV 뉴욕지사와 함께 뉴욕의 기독교인들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전 GOOD TV 대표이사는 "뉴욕지사가 한인사회를 하나로 묶는 과의 가교가 되길 바란다"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고국과 함께 복음통일의 날을 기대하는 일에 뉴욕지사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만호 뉴욕교협 회장은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본사가 승리하고 성공한 것처럼 뉴욕지사도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도하겠다"고 축사했다. CSN GOOD TV는 OTT(Over The Top) 방식으로 TV나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데스크탑 등 모든 기기로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시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1-800-543-8591, csnnewyork@gmail.com로 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이영훈 목사는 "복음전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데 방송매체는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방법"이라며 "굿TV 뉴욕지사가 뉴욕에서 뿐 아니라 온 세계로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기 바란다"고 말하고 현재 중국에 기독교의 문이 닫힌 상황을 설명했다. 이영훈 목사는 "굿TV 뉴욕지사와 함께 뉴욕의 기독교인들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전 GOOD TV 대표이사는 "뉴욕지사가 한인사회를 하나로 묶는 과의 가교가 되길 바란다"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고국과 함께 복음통일의 날을 기대하는 일에 뉴욕지사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 뉴욕나눔의집 거주 노숙인 별세 연고자 없어 장례비 후원 기다려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노숙인 조용수 집사가 지난 9일 오후 2시 30분 향년 77세로 소천했다. 박성원 목사는 조용수 집사가 미국에 연고가 없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형편이므로 교회들의 후원을 바라고 있다. 박 목사에 의하면 조용수 집사는 한국 대구에서 신문기자로 활동하다가 1985년 뉴욕으로 이주 후 브루클린에 위치한 한 델리에서 샌드위치 만드는 일을 했다. 서류미비자였던 조 집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2014년 3월 브루클린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지만 갈 곳이 없어 결국 나눔의집에 입실해 생활하게 됐다. 나눔의집에서 생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으며 집사 직분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난 6월 당뇨와 폐렴으로 플러싱병원에서 입원했지만 폐렴이 악화



박성원 목사와 조용수 집사(왼쪽)

됐다. 뉴욕나눔의집 연락은 전화 (718)683-8884, 이메일 nanoomhouse9191@gmail.com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뉴욕나눔의집)



CSN GOOD TV 뉴욕지사 개국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동부(NY, NJ) 교회

<b>뉴욕부러클린제일교회</b>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12: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전 8:30 (매주 1주, 3주) Tel: (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a href="http://www.kcb.org">www.kcb.org</a>	<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예배: 오전 9:00,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a href="http://www.kcb.org">www.kcb.org</a>	<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예배: 오전 11:00, 1:30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청년예배: 오후 3:20(영-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목요일: 오후 7:30 목요일: 오후 8:30 목요일: 오후 9:30(토)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a href="http://www.kcb.org">www.kcb.org</a>	<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 Fax: (718)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a href="http://www.kcb.org">www.kcb.org</a>	<b>뉴욕셋새미교회</b>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40 주일4부예배: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nygodsp@yahoo.com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a href="http://www.nygodsp.org">www.nygodsp.org</a>	<b>뉴욕목양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a href="http://www.mokyang.org">www.mokyang.org</a>		
<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a href="http://www.sungdochurch.org">http://www.sungdochurch.org</a>	<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b>빛과소금교회</b>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전 10: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청년예배 오후 3:20(영-토)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b>주비전교회</b> 담임목사: 이규분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2부예배: 오전 6:00 금요초대기도: 오후 5:00 영어예배: 오후 1:00 Tel: (718)787-98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me Rd, Manhasset, NY 11030	<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a href="http://www.kcb.org">www.kcb.org</a>	<b>퀸즈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http://www.pccny.org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b>브라질 새소망교회</b>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8A PAULO-SP-BRASIL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 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b>칠레 한인연합교회</b>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b>토론토 가든교회</b>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a href="http://www.torontochurch.org">http://www.torontochurch.org</a>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b>하와이 행복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주일3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b>하와이 행복교회</b>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808)584-5780, Fax: (808)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b>브라질 새소망교회</b>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5:4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a href="http://www.kcny.org">www.kcny.org</a>
<b>하와이 행복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주일3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b>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b> 선교사: 임한근 목사 멕시코 번식 신학교 교수 주일부예배: 오전 10:00 주일부예배: 오후 3:00 주일부예배: 오후 6:00 (1, 2부 사역원 후 설교) Tel: (52)333-3507-4111 E-mail: hanjkr@hanjkr.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ajara MEX(멕시코)					



# 이정남 대표회장... “장로교 신앙전수 주력” 한장총 미서부지회 창립총회 감사예배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유중현 목사, 이하 한장총) 미주 서부지역 연합회 창립총회 및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가 16일 오전 10시 가든스위트호텔에서 열렸다.

이정남 대표회장은 “은퇴 후엔 어떠한 단계도 말치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한장총 서부지역 연합회 출범을 위해 산파역할을 하신 유중현 대표회장 및 여러분의 권유로 회장의 자리에 서게 됐다”며 “한국뿐만 아니라 이곳 LA는 혼합주의와 타종교들의 위협으로 후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이어주게 될지 염려된다. 한장총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전하고 진리의 횃불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아울러 후대들에게 장로교의 투철한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이 발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효우 목사(미주 서부지역 운영회장)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안문기 장로(한장총)가 기도했으며 홍성표 목사(미주서부지역 부회장)가 성경 봉독했으며 유중현 목사가 ‘이로운 사람’(마1:18-21)이라는



한장총 미서부지회 창립총회 및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우측원안은 이날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이정남 목사가 한장총 대표회장 유중현 목사로부터 서부지회 깃발을 전달 받는 모습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김동기 목사(위원장)이 한장총 소개 및 연혁을 발표했으며 김병도 목사(서부지역 상임회장)이 축사하고 유중현 목사가 축도했다.

이어 열린 2부 창립총회는 유중현 목사가 분회 설립배경과 대표회장 임의 허락의 건을 진행했으며 이날 모인 회원들의 허락으로 이정남 신임 대표회장이 추대됐다.

이정남 대표회장 사회로 열린 총

회는 회록채택, 기타 안건이 논의됐으며 폐회 선언 후 최학량 목사(미국 서부지역 상임회장)가 폐회 기도

(박준호 기자)



은혜한인교회 일천번째 종로 40일 특별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있다



제15회 휠체어 사랑이야기 콘서트에서 전출연자들이 연합으로 합창하고 있다

## 살롬장애인선교회 선교기금 마련 제15회 휠체어 사랑이야기 콘서트 성황

살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는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콘서트 “제 15회 휠체어 사랑이야기”를 15일 오후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신영각 목사)에서 개최했다.

박모세 목사는 “제 15회 휠체어 사랑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며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를 통해 아프리카 토고 등 지구촌 불우한 3천명 이상의 장애인들을 섬길 의료보조기구들을 선적할 예정이다. 콘서트출연을 위해 휴가도 미루고 달려와 준 바리톤 강주원 씨를 비롯한 출연진들과 콘

서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박모세 목사 사회와 강순례 사모의 수화통역으로 시작된 콘서트는 유영기 목사(본 선교회 고문)가 메시지를 전했으며 KAM코랄(지휘 이수정 집사), 바리톤 강주원, 남가주농악교회 수화 찬양팀, 배우는 자매, SDM찬양팀이 출연해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했다.

이날 콘서트는 전출연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연합합창을 부른 뒤 김준식 목사(남가주살롬교회 담임)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봉사상 시상식에서 봉사상 수상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봉사상 시상식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봉사상 시상식이 14일 오후 1시 LA다운타운에 위치한 본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시상식은 한국전통무용팀(유숙영 무용학원)과 신동부한국학교(교장 최희정) K-Pop 팀들이 지역 사회에 한국문화 전달에 기여하고 자원 봉사한 공로를 인정해 오랜 지카운티 슈퍼바이저 미셸스틸워 원장으로부터 봉사상이 전달됐다.

이날 오찬 겸 시상식에서는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샘신 목사와 전

대한민국 국회의원 조용규 박사와 이우호 총회장이 시상했다.

참석한 학생들을 위해 샘신 목사의 축복기도와 조용규 의원의 격려사 그리고 이우호 회장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학생들을 지도하는 유숙영 원장과 최희정 교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학생들의 장래를 축복하고 격려했다.

자원봉사 학생들은 제68회 한국 참전 기념식에 참석해 공연과 함께 봉사활동을 했다.

(기사제공: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남가주지회 7월 정기집회에서 고남철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 서부교계 게시판



### 제37회 남가주찬양합창제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전현미)가 주최하는 ‘제 37회 남가주찬양합창제’가 22일 오후 6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찬양합창제는 8팀의 찬양대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II’라는 주제로 열리며 이날 현금은 “이웃교회 사랑나눔기” 선교헌금으로 쓰여진다.

▲문의: (562)419-4057 전요셉 합창분과장

### 미주장신대학교 평신도 대학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가 가을학기부터 ‘평신도 대학’을 개설한다. 기간은 오는 9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11주 과정으로 본교 채플실에서 진행된다. 접수는 8월 17일까지(7월 31일까지 접수 시 20달러 할인 혜택)이며 수업료는 200달러(강좌별 30달러).

▲문의: (213)703-9856 박동식 교수, dspark@pts.edu

### 남가주사랑의교회 여름성령축제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여름성령축제가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라’라는 주제로 8월 3일(금)부터 5일(주)까지 개최된다. 강사는 송태근 목사(삼일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3일(금) 저녁 7시30분, 4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 5일(주) 1-3부 예배이다.

▲ 문의: (714)772-7777

### 동양선교교회 설립 48주년 기념 임직예배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 설립 48주년 기념 임직예배가 29일(주) 오후 4시에 열린다.

▲ 문의: (323)466-1234

### 할렐루야 축구단 이영무 목사 1일 간증집회

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 손원배 목사)는 할렐루야 축구단 이영무 목사 1일 간증집회를 29일(주) 오후 2시 4부 예배시간에 갖는다.

▲ 문의: sandolle@kepc.org, 이산돌 목사

### 남가주외대코랄 제5회 정기공연

한국외국어대학교 남가주 동문회 산하 합창단인 남가주 외대코랄(단장 김재권, 지휘 오위영 목사)이 28일(토) 오후 7시 LA 다운타운 지퍼 홀(200 S. Grand Ave.)에서 제5회 정기공연을 갖는다. 공연 티켓은 25달러다.

▲ 문의: (213)820-3850, (818)397-0400, (323)854-6179

### 한미장학재단 서부지부 장학기금 마련 베네딕트 콘서트

한미장학재단 서부지부(회장 프레디 김)는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베네딕트 콘서트를 29일(주) 오후 7시 지퍼 홀(200 S. Grand Ave.)에서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알핀 흥, 비올리니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테너 오위영 목사가 출연한다. 베네딕트 콘서트의 티켓은 웹사이트(KASFBENEFITCONCERT.EVENTBRITE.COM)에서 사전 구매가 가능하며 공연 당일 현장구매도 가능하다. 학생 및 시니어는 25달러이며 성인은 40달러이다.

▲ 문의: fkim33@yahoo.com

### 합창지휘 세미나

체코브르노콘서바토리 LA 지교 주관으로 합창지휘 세미나를 개최한다. 체코 브르노 콘서바토리 학장이며 코리아 챔버싱어즈 상임지휘자, 세계합창올림픽 심사위원인 김동현 교수가 강사로 서며 21일(토) 오후 4시 JWC센터(7342 Orangethorpe Ave. #A 211 Buena Park)에서 열린다. 참가비 없고 저녁식사가 제공 된다

▲ 문의: (714)699-0210, 송규식 목사

### 한국문화원 이야기가 있는 “한국가곡의 밤”

한국가곡의 밤(위원장 김낙중)이 27일(금) 오후 7시30분 LA한국문화원 3층 공연장 '아리홀'에서 테너 오위영, 소프라노 이를라라, 테너 양두석, 바리톤 채홍석, 소프라노 김종숙, 한국에서 초청된 성악가 소프라노 강혜정 교수 등 미국 현지와 한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섯명의 성악가들의 노래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열린다.

▲ 문의: (323)936-3015

## “지금도 조국 군대 위해 기도할 적기”

###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남가주지회 7월 정기집회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남가주 지회(회장 김희창 목사) 7월 정기 집회가 지난 14일 오전 11시 영생 장로교회(담임 김해성 목사)에서, 한국군 축소시도를 하려는 현재 상황에서 “지금도 조국 군대 위해 기도할 적기이다” 주제로 열렸다.

남가주목사회장이며 미국군 경찰로 시무하던 샘 신 목사의 인도로, 월드쉐어 미주대표인 군복출신 강태광 목사(예비역 육군소령)가 조국과 사랑하는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차기학 부회장 팀이 은혜로운 특송을 하고, 이어서 육군군복 출신 고남철 목사가 “화살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미주성결교회 총회장을 지낸 고남철 목사는 메시지에서 네 가지 교훈으로 “첫째, 화살은 예리해야 유용한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말씀과 기도로 갈고 닦아야 부패된 사회를 다룰 수 있고 둘째, 화살이 목표를 향해만 하듯이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달리며 셋째,

활 쏘는 자의 손에 잡혀야만 유용 하듯이 주님께 쓰임 받는 자가 돼야 하며 넷째, 화살이 일단 당겨져 적중하면 화살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활 쏘는 자에게 가듯이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기독 정병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입회자 성악가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은후 남가주교역자회장 육군군복 출신 안신기 목사의 봉헌기도와 해군과 해병대 군복 출신인 회장 김희창 목사의 광고시각에 예배에 처음 참석한 한미예교연합회 권성주 이사를 소개했다.

예배 후에 회원 오찬으로 친교를 하며 “진리사수의 띠, 조국수호의 띠”인 기독교인회 상징 벨트를 지난달에 이어서 선물로 나누었다.

본 회 8월 정기모임은 11일(토) 오전 11시 영생장로교회에서 해방 73주년과 대한민국건국 70주년 기념예배로 드린다.

▲문의: (213)268-9367 김희창 회장

##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주제 은혜한인교회 일천번째 종로40일 특별기도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는 주제로 지난 5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비전센터 분당에서 일천번째 종로 40일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2015년 10월 12일부터 시작된 일천번째를 2018년 7월 7일을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40일 동안 특별 기도회를 가진 것이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한기홍 담임목사의 선포에 매일 밤 1,0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구체적인 기도제목과 응답받은 내용을 제출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했고 응답받은 내용에 대해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종로 40일 기도회 기간 동안 은혜교회와 성도들은 교회와 가정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영적 부흥, 선교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첫사랑을 회복해 하나님

을 향한 열정이 뜨거웠던 신앙이 다시 일어나 새롭게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주바라기의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했다.

한기홍 목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말씀을 통해 이뤄지며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매일 저녁 기도회 때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선포했다.

“첫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된다. 둘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이 되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된다. 셋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이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된다. 넷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

(기사제공: 은혜한인교회)



CMF 선교회 7월 정기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예수님 만나 훌륭한 일군된 사도 바울처럼... CMF선교회 7월 정기 모임

CMF선교회(대표: 김철민 장로) 7월 정기 모임이 14일 오후 5시 CMF 회관에서 열렸다. 김철민 장로의 사회로 열린 기도회에서 이날 대표 기도자인 김영호 선교사(예멘)가 기도하고 이어서 폴리 목사(CMF 북방선교사)가 등단해 고린도전서 15장 9절-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 만남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폴리 목사는 “사도 바울은 능력이 많았던 훌륭한 선지자였다. 성경에서 바울의 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된 것”이라 말하며 “이런 생활 속에서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의 앞길이 결정되기 때문에 만남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훌륭한 주의 종이 된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한다”고 당부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 국가는 악행하는 자 처벌하는 '하나님의 대행자'

## "기독교인은 왜 군대 가야 하나"

기독교인은 여호와와 증인 신도들과 달리 군에 입대하고 있다. 이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전쟁을 바라보는 신학적 성찰에 근거한다.

성경에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마26:52)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롬13:1)는 말씀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급진적 평화주의와 의로운 전쟁론이 등장했다.

급진적 평화주의는 비폭력, 무저항 방식을 지향한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군복무를 거부했다. 하지만 단순히 "평화"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다. 존 스토트 목사는 그의 책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에서 "그들의 거부하는 로마 군대 생활의 우상숭배적인 관행과 관련돼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며 "평화주의자들은 전쟁이 그들의 기독교적 순종과 양립할 수 없음을 인식했다고 주장

하지만 이는 확실치 않다"고 진술한다.

영국 세인트크로스대학 디아메이드 매클로흐 교수는 그의 책 '3000년 기독교역사'에서 초기 그리스도인이 쉽게 군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를 "(로마) 군대 생활에는 공식적인 희생제사에 으레 참석하는 것이 요청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단순히 평화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상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 입대를 거부했던 것이다.

군 입대가 정죄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로마서 13장 1-7절이 근거다. 이 구절은 악행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행자로 국가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군인을 포함해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스토트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그런 일에 참여해야 한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의로운 전쟁론에는 '공격이 아닌 방어적 전쟁이어야 하며, 수단이 통제돼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성경에서는 군인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딤후2:1-4)로 기독교인을 비유하고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full armor)'(엡6:11)를 입으라고 권면한다. 자신의 종을 위해 예수를 찾아온 가버나움의 백부장(마8:5-13) 역시 군인이었다. 예수는 그의 믿음을 칭찬했다.

평화주의는 로마의 기독교 공인(313년) 후 힘을 잃었다. 교회는 제국을 지켜야 할 책임을 부여받았고 교회는 이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16세기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츠빙글리는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포괄하는 로마가톨릭 군대를 대항해 직접 칼을 들고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순교했다.

## "살인 안 하려 거부? 살인 막으려 군대 간다!"

### 종교적 병역거부 논란 속 크리스천 청년들의 반론

병역거부가 양심적인 것처럼 호도되는 시대다. 병역거부가 양심적인 것이라면 병역의무를 다하는 것은 비양심적 행위가 된다. 이 같은 왜곡은 여호와와 증인 신도들이 자신들의 교리에 따른 병역거부를 '양심적'이란 말로 포장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달 28일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하면서 이를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실상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병역의무 이행은 비양심적이 된다거나 병역을 이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병역의무자들과, 병역의무 이행이 국민의 송고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이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호와와 증인과 달리 기독교인은 병역의무를 도덕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 기독교인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가이사: 가이사에게

기독교인들은 공통적으로 국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강조하며 군 입대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라는 공동체에 포함된 만큼 국가가 요구하는 책임에는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오는 16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하는 주모(23)씨는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왜 군대에 가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주씨는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야 한다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눅20:20)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알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국가의 의무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입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 달 입대하는 양찬혁(22)씨도 인간이 공동체에 필연적으로

속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양씨는 "교회부터 나라까지 인간사회는 공동체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공동체와 나 자신이 서로 필요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역도 공동체의 요구라고 여겨 입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군대는 살인을 위한 곳?

여호와와 증인처럼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로 확고했다. 여호와와 증인은 '살인을 금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강조하지만 이는 병역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살인이나 침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살인을 막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하기 때문이다.

10월 입대가 예정된 윤영식(21)씨는 성경의 근본주의적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군대는 평화를 지키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에 가는 것이 성경 말씀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윤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인하지 않아도 다른 이들이 일으키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중등부 주일학교 교사로 사역하며 입대를 기다리고 있는 김학준(20)씨는 군대가 살인을 저지르는 곳이라는 정의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침략이 아닌 방어를 위해 군대를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단순히 총을 잡는다는 이유로 살인과 연결된다는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법 5조 1항에서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돼 있다.

묵묵히 병역의무 이행할 것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이들을 위해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사실상 병역을 이행하는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그러나 기독교 청년들은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윤씨는 "당연히 의무인 만큼 군대에 가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 특별히 우울감을 느낄 이유가 없다"면서 "기독교인이라면 묵묵히 병역을 이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입대를 앞두고 있는 한 전도사는 "여호와와 증인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이들이 더 긴 복무기간과 더 어려운 복무를 감당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 올해도 음란으로 물든 쿼어축제

### 서울시 "계도하겠다" 변명만

동성애자들은 14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쿼어행사에서도 다시 음란성을 드러냈다. 서울광장이 '성(性) 해방구'로 변질된 만큼 불법행위가 난무했지만 서울시는 사실상 손을 놓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광장에는 남성 성기모양의 자위 도구, 남녀 성기 모양의 비누가 등장했다. '레즈비언 섹스토티 사용만화' 등 음란물도 버젓이 판매됐다. 일부 참가자는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과도한 복장을 한 채 광장을 돌아다녔다.

서울광장은 시민의 공적 공간이기 때문에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에 따라 물품 판매와 모금 유추행위, 애원권 동반 등은 일체 금지된다.

그러나 '큐토박스' 'SOGI 법정책 연구회' 등 80개 이상의 부스에서 책자 판매와 물품 판매, 후원금 모금 행위가 계속됐다. '러쉬는 카드 결제기까지 가져왔고 주회 측은 대놓고 후원행사를 벌였다. 음주행위도 곳곳에서 벌어졌고 애원권을 끌

고 돌아다니는 참가자도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속 계도를 하고 있다. 우리의 말을 들을 때까지 계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쿼어행사 참가자의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엔 답변을 피했다. 이날 쿼어행사 현장 소음을 측정해 결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기준치인 75dB보다 높은 82dB이 나왔다.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동성애자조차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최대의 게이 사이트인 I시티

## "퀴어행사 허용은 직권남용·직무유기"

### 동반연 등 3개 단체 서울시장 고발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바른성문화화위한국민연합(바성연), 자유와인권연속 3개 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최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3개 단체는 고발장에서 "박 시장이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

에선 '극혐'이라는 말이 딱 맞다. 혐오감만 불러 일으킨다"(아이디 j\*\*\*) "무작정 벗고... 내가 봐도 더럽다"(아이디 2\*\*\*\*\*)는 비판 글이 올라왔다. 심지어 N\*\*\*\*은 "벗은 사람 볼 때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토로했다.

퀴어행사를 둘러싼 김용관(53)씨는 "예년에 비해 노출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음란 요소가 많았다"면서 "퀴어행사라기보다 성 박람회 가 더 어울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런 행사를 승인해주고 자신이 선출한 위원들로 구성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겼다"면서 "박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 조례'에 따라 광장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쿼어행사의 광장사용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권한이 있었지만 직권을 남용해 수리했다"면서 "퀴어행사 때마다 벌어지는 불법적인 행태를 알면서도 광장 사용을 정지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 "200만 이주민 선교 더 많은 한국교회가 동참해야"

### 기성, 이주민 선교 콘퍼런스 개최

국내에 체류 중인 200만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교에 더 많은 교회의 동참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총회장 윤성원 목사)는 10일 서울 용산구 만리현교회에서 '이주민 선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콘퍼런스는 기성과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이주민 사역자 7명이 참석해 각자의 사역 모델 및 전략을 소개했

다. '국내 이주민 선교를 통한 세계 선교'란 주제로 발표한 전철한 한국국인선교회 대표는 "국내 이주민은 5만 한국교회가 선교에 동참토록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라며 "현재 전국 교회 및 선교단체가 600여곳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다. 더 많은 교회가 동참한다면 200만 이주민 전도는 어렵지 않게 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교계, 청빙 둘러싸고 잇단 잡음 왜?

### 담임목사 청빙 천태만상, '모셔온다' 는 옛말...

"목사님, 설교 면접은 이번 주일 11시30분입니다.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싶어 해서요."

최근 강원도 한 교회의 담임목사 청빙공고에 이력서를 제출한 A목사는 이런 제안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주일에 설교하러 가기 위해선 현재 사역하는 교회를 한 주 비워야 한다. 하지만 다른 교회 면접을 위해 주일설교까지 빠지는 건 A목사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백 번 양보해 설교하러 가도 소문이 급속도로 퍼질 게 뻔했다. 후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없던 그는 '주일 설교 면접'을 포기했다.

담임목사 청빙을 둘러싸고 잡음이 많다. 청빙(請聘)은 '부탁하여 부른다'는 정중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앞선 사례와 같은 문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A목사의 사례는 일반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에서도 볼 수 없는 경우다. 다니던 회사의 업무 시간에 이직할 회사에 와서 업무 능력을 발휘해 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안이 생명인

이직 과정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교계에서는 드물지 않다.

최근 담임목사 청빙을 마친 B교회는 '바람직하지 않은' 청빙 사례로 구설에 올랐다. 1년 가까이 청빙 과정을 진행한 이 교회는 담임목사 지원 서류를 제출한 목회자들의 면면이 번번이 공개됐다. 유출된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개될 때마다 해당 목회자가 사역하던 교회가 발칵 뒤집혔다.

자이든 타의든 B교회 후임 목사로 하마평에 올랐던 목사들은 평생 '교회를 떠나려 했다'는 꼬리표를 달고 살 수밖에 없다. 당사자에게는 무척 곤혹스러운 일이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억울해도 딱히 항변할 곳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빙의 정신은 사라지고 채용만 남았다는 불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계에선 청빙의 본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담임목사가 공석이 된 교회가 소속 교회에 청빙을 요청하면 노회는 교

'이주민 선교가 곧 세계선교'라는 주장도 나왔다. 25년간 미얀마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선교활동을 한 이명재(실로암교회) 목사는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미얀마 노동자에게 침례, 심방, 한국문화 체험 등의 사역을 꾸준히 펼쳤더니 한국뿐 아니라 미얀마에서도 사역의 결실이 생겼다"며 "본국으로 귀환한 노동자들은 양곤에 실로암교회를 세우고 기도원, 고아원, 유치원, 신학교, 가정교회를 설립하며 신실하게 미얀마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회와 협의해 후임 목사를 보내는 전통을 회복하라는 주문이다. 최근 감리교 목회자들 사이에서 연회가 교회에 담임목사를 파송하던 기능을 복구하려는 요구가 나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문제는 교세를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목회자'를 원하는 지역 교회 현장과의 온도차가 커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 목회자는 "주일 설교 면접은 그리 특별한 일도 아니다"면서 "채용이 일반화된 게 사실이고 노회나 연회의 권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청빙이나 파송의 정신을 회복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호주연합교회의 경우 청빙 정신을 살리기 위해 노회와 교회가 공동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김도영 호주 아델레이드 페이넘교회 목사는 "노회와 교회가 청빙위원회를 함께 구성한 뒤 3명의 후보자를 교회에 추천하면 교회는 비밀리에 인터뷰를 거쳐 담임목사를 낙점한다"면서 "청빙 과정이 완벽해졌으면 아니어도 '목사의 기술'을 살펴보는 채용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고 전했다.

## 기하성 순지방회 정재용 목사

### 아시아하나님의성회 참석 지원안건 채택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서대문측 순지방회(고문 박문옥 목사, 회장 정재용 목사)가 12일 1호선 회기역 인근 서울중앙교회에서 열린 월례회에서 아시아하나님의성회에 참석하는 정재용 목사를 지원하는 안건을 채택했다.

아시아하나님의성회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되며, 순지방회는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80만원을 지원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정 목사는 총회의 지원을 받아 아시아하나님의 성회에 참석해 미

하나님의성회의 대학생선교 사역 활성화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서울중앙교회는 인근에 다수의 대학이 밀집돼 있어 학원선교사역의 적지로 꼽히는 곳이다.

정 목사는 "북미회담 이후 미하 하나님의성회가 북한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젊은이들을 미국이나 영국에서 직접 교육해 그들이 북한에 들어가 선교사역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목사는 '먼저 그의 나라

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태복음 6장 33절)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며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아서 혼자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목사는 2001년 영국에서 박사 학위를 마친 뒤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선교사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교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날 월례회에서는 박문옥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우리동네에배당 소속 엄기실·장윤라 전도사와 정재용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서울중앙교회 소속 이도중 전도사가 전도사 임명장을 받았다.

## "동성애 罪에서 돌아오라" ...생명문화 펼쳤다

### 교계, 쿼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전국에서 모인 성도와 시민단체 회원들은 14일 서울광장 옆 세종대로에서 '동성애퀴어축제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쿼어 행사에 맞서 동성 간 성행위의 폐해와 부모덕성을 지적하고 가정과 생명의 중요성을 대규모 퍼레이드와 문화콘텐츠로 알렸다.

전국서 모인 1만명 '가정' '생명' 외쳐

부산, 대구, 대전, 경북 문경 상주 포함, 충남 당진, 충북 청주, 전북 전주 등에서 온 1만여명은 5차로 구간을 가득 채우고 동성애 동성혼 반대, 젠더평등 반대, 차별금지법 저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마이크를 잡은 이영희 에스더 기도운동 대표는 "청와대가 쿼어 행사를 막아달라는 21만9000여명의 국민청원을 무시했다"면서 "이런 무성의한 정부를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불러도 되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이어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온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귀하게 여기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며 "우리가 말하는 진실, 소망을 대통령과 서울시장, 온 국민에게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애들이, 돌아와라" "나쁜 어른들이 말하는 거짓 인권에 속지마라"는 구호를 외

치며 송례문을 거쳐 광화문까지 3.2km 구간을 행진했다. 자녀 2명과 함께 참석한 박병주(45·여)씨는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사랑을 인정해주고 차별금지법마저 통과된다면 훗날 아이들이 진짜 사랑을 판단할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며 "이걸 막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동두천에서 유모차를 끌고 온 박은정(41·여)씨도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절박한 마음에 나왔다"면서 "동성애 옹호·조장 교육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말했다.

올해 국민대회는 4부로 나눠 문화축제를 열고 가정과 생명의 중요성을 문화콘텐츠로 제시했다. CCM가수 다탈의 노래와 강찬, 남성 팔레타 보헤미안 등의 공연에서 참가자들은 일어나 춤추며 공연을 즐겼다.

시민 자발성 돋보여... 집회가 남긴 숙제

이번 국민대회에선 대형교회에

서 중소형교회로, 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시민단체로 무게 중심이 옮겨졌다. 김원평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은 "올해는 대형교회의 인원원이 없었던 반면 시민단체와 성도들의 자발적 참여가 돋보였다"며 "앞으로 시민단체 중심의 자발적인 집회 개최와 모금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양규 한동대 교수는 "퀴어행사를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 특히 젊은 층의 정서가 잘 표출됐다"면서 "퀴어 쪽은 참가 인원이 적었는데도 6만~10만명이 참가했다며 인원을 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란하고 퇴폐적인 행사를 꼭 하고 싶다면 실내공간에서 하면 된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금처럼 서울광장을 계속 열어서 준다면 언젠가 거센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국민대회에선 쿼어행사에 참가하는 10대 청소년의 급증 현상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막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숙제도 남겼다.

김지연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는 "퀴어행사 참가자들의 주축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20대에서 10대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시민단체 중심으로 국민 계몽운동을 전개해 학생인권조례와 군대내 동성애 등의 폐해를 적극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 선교의 창 (105)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 월드컵 대회를 통해 본 선교적 통찰력(INSIGHT)

2018년 여름을 뜨겁게 달군 제 21회 FIFA 월드컵이 러시아에서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6월14일부터 7월 15일 까지 32일간의 대장정이었다. 전체 게임은 64경기로서 본선 진출국 32개 팀이 참여하였다. 최종 결과는 프랑스가 크로아티아를 4대2로 꺾고 20년 만에 2번째 우승을 차지하였다. 한국은 비록 16강에 오르지 못했지만 세계 최고의 팀인 독일을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축구경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다.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평소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대회에서는 치밀한 전술전략이 필수적이다. 선교는 어떠한가? 이는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 전쟁에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세상의 운동 경기이든 선교이든 그 원리와 전략은 비슷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우리는 월드컵대회를 통해 본 선교적 통찰력을 깨어 선교현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유기적인 팀워크

축구는 감독의 지휘 아래 11명의 선수가 팀워크를 이루어 하는 경기이다. 동네 축구는 한 두 사람의 특출한 선수가 있으면 이긴다. 그러나 어지간한 대회 이상에서는 스타플레이어(Star Player)에 의존하면 이길 수 없다. 이번 예도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세계 축구계는 리오넬 메시(Lionel Messi)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Cristiano Ronaldo)가 호령해왔다. 금번에 메시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아르헨티나는 16강에서 나가 떨어졌다. 호날두의 포르투갈 역시 16강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브라질 팀은 선봉

21세기 선교는 미드필더 라인이 강화되어야 한다. 전략본부에 없는 전투는 오합지졸이 되기 쉽다. 현실적으로 한인 세계선교의 가장 취약한 분야가 바로 허리 라인에 해당하는 파송단체들이다.

아마도 작금의 한인 세계선교의 대형(formation)은 100-0.1-8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 한인 선교 단체들은 인력, 재력, 환경 등에서 구멍가계수준이라고 해야 맞다. 타 문화권 선교의 일은 전문성, 특수성, 과중성의 부담 속에 있다. 그러므로 이제 한인교회가 선교사 한 가지를 보내는 것보다 선교기관이 중간 라인에서 전략적 선교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지 않는

스포츠 경기와 선교의 승리 방정식은 비슷한 부분이 많다.  
영적 미완성 과업은 선교사라는 대표 선수 몇 명으로 될 일이 아니다.  
교회 안의 선교 잠재력과 선교현장 간의 병목 현상을 확 뚫어야 가능하다.

### 1. 기회 포착에 따른 결격력

축구 경기는 어떠한 팀이 이기는가? 강팀이라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다. 아무리 강팀이라도 결정적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지게 된다. 지난 6월 27일 월드컵 축구 FIFA 랭킹 57위인 한국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챔피언이자 FIFA 랭킹 1위인 독일을 2대0로 이겼다. 독일은 어떤 팀인가? 전자 군단처럼 짜여진 팀워크와 힘으로 월드컵을 4회 우승했으며 이번 대회에도 우승후보 1순위에 올라 있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대결에서 한국이 이길 확률은 1%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했다. 실제로 독일은 볼 점유율에서 70%로 30%의 한국을 내 이상 앞섰다. 패스 횟수와 성공 율도 625/725회로서 178/241회의 한국과 4배의 차이가 났다. 슈팅 수에서도 한국이 11개로서 26개의 독일보다 15개가 적었으나 2골을 넣으므로 이긴 것이다.

선교도 다 때가 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기회포착을 잘 해야 한다. 성경의 감동이 있을 때 복음을 선포하고 결단하도록 도와야 한다. 지속적인 선행으로 변죽만 울리던 허방이 되기 쉽다. 선교사가 할 일은 복음의 씨를 뿌리고 회심한 자들을 양육하여 그들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도록 돕고 때가 되면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교현장도 언제 전도의 문이 닫힐지 모르기 때문이다.

장으로서 네이마르(Neymar)라는 걸출한 선수가 있었으나 역시 8강에서 고배를 마셨다.

현대 선교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제 영웅적인 한, 두 사람으로 될 일이 아니다. 세대는 갈수록 복잡하며 선교 환경이 악화되어가고 있다. 특히 이슬람권과 공산권은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폐쇄적이다. 글로벌 시대에 선교 지형은 전, 후방이 없어지고 있다. 이때 우리는 분업화, 전문화, 조직화로서 철저한 팀워크를 이루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3. 미드필더를 강화한 대형(formation)

스포츠는 개인이든 구기종목이든 허리부분이 중요하다. 따라서 현대 축구 경기에서 감독들이 가장 많이 쓰는 포메이션은 수비수-미드필더-공격수라는 대형으로서 3-5-2나 또는 4-4-2 전술이다. 이는 미드필더를 강화하는 형태로서 상대 팀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의도이다. 미드필더 진은 링커(linker)로서 공격과 수비를 연결하면 서로 필요시 직접 공격이나 수비의 한 축을 담당한다.

선교 상황을 축구에 비유하면 재미 있다. 선교사가 있는 현장이 공격라인이라면 후방의 교회는 수비라인이다. 그리고 중간 선교단체는 전, 후방을 연결하는 허리라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 후원교회와 선교현장 간의 병목현상은 해결하기 어렵다.

### 4. 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적 포석

흔히 말하는 유럽 프로축구 빅3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Premier League), 스페인 프리메라리가(Primera Liga), 이탈리아 세리에 A(Serie A)에는 수많은 명문 축구팀들이 있다. 이 프로 팀들은 대부분 영재 발굴을 위해 자체적으로 유소년들을 위한 축구학교가 있고 또한 축구 캠프를 수시로 열고 있다.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 헝가리 등 여타의 나라들도 국가나 프로 구단 차원에서 축구 꿈나무들을 위한 교실이 많이 있다. 그 수가 하도 많고 다양해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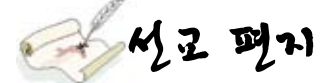
큰 제목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동안 풍상을 맞으며 길러진다.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으면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인 세계선교의 미래를 볼 때 이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나이 들어 헌신해서 들쭉날쭉 하는 사람보다 사무엘이나 다니엘처럼 유소년기부터 헌신해 평생을 주께 바칠 일꾼들이 필요하다. 이들이 건물의 기둥처럼 선교지를 지키며 여러 단기사역자들과 조합을 이룰 때 이상적이다. 인물 후보군은 충분하다. 바로 MK(선교사 자녀)들을 교회들이 입양해 차세

대 선교사로 키워야 한다.  
5. 국민적 열망을 채워주는 대회

이번 월드컵 대회의 특징은 유럽 팀의 강세이다. 세계축구의 한 축인 남미가 4강에 한 팀도 오르지 못했다. 왜 유럽축구가 갈수록 세지는가? 국민적 기대와 열망이 크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축구는 종교에 가깝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큰 대회들이 즐비하다. 월드컵 말고라도 각 나라별 프로축구 리그가 문명성시를 이룬다. 또한 작은 월드컵이라 이름 하는 유로(선수들의 꿈의 무대인 챔피언스 리그 UEFA Champions League)가 있다. 이는 유럽에서 가장 우수한 축구 클럽들을 대상으로 매년 열리는 클럽 축구 대회이다. 이로서 남미를 비롯 세계의 정상급 선수들은 대부분 높은 몸값을 쳐주는 유럽으로 넘어가 활동하고 있다.

유럽은 축구의 메카이자 영광로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 원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세계 선교는 대표선수 몇 명으로 될 일이 아니다. 유럽 축구처럼 전, 후방이 없이 모두가 일어서야 가능하다.

어떻게 선교의 불길을 일으킬 것인가? 우리는 나의 교회라는 캠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캠프를 바라보며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로 성격변



## 헝가리 부다페스트

Dear, 기도와 주님사랑으로, 또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 선교후원해주시는 분들께!  
안녕하십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인내를..."(살전1:3). 인생에 특별한 시간인... 그런 날들을 보내고 계시지요? 주께서 최선으로 인도해주시기를!

지난 달 저희에게 놀라웠던 일은 그리스정교 신부가 가족을 데리고 저희 주일학교에 온 것과, 전자 추척기를 발목에 달고 있던 고아원의 이쉬트반이 드디어 자유를 얻어 교회 와서 예배드릴 것입니다.

기도와 주님사랑으로, 또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 선교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달란트를 저희에게도 맡겨주신 하나님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되셨습니까?  
사전을 간단히 설명하면서 소식과 기도제목을 전해드립니다(사전을 위라에 두 칸 씩, 셋째 칸은 옆으로).



- "콤폴렉스 학교"(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종업식 날, 저희 교회에서 다섯 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멜린다, 예브린, 피테르팔, 안탈, 아담! 이들이 예수님 사랑하여 신실한 일꾼 되도록!
- 위에 언급했던 '이쉬트반'(17살)이 예배 중간중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또 급식을 섬겼습니다.  
마약과 도둑질로 소년원에 갔다가, 전자추척기를 달고 고아원에 돌아왔던, 그가 이제 새사람 되도록!
- "회수 슬러거"와 "요셉아틸라 고아원" 심방사역 중에는 여러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불법 무단 거주하는 집사가족들이, 서로 방을 차지하다보니, '가베'(9남매)네도 방이 바뀌었습니다.  
마약으로 유급을 했던 '선다'(만 17살)가 마침내 9학년을 통과, 10학년에 올라가게 되어,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고아원의 심대들이 예수님 사랑과 삶의 목적을 깨달아 신실한 자들 되도록!
- "남부여 거리교회" 예배와 급식사역을 마칠 때, 마지막으로 온 노숙자...

(16면으로 계속)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p><b>감사한인교회</b></p> <p>담임목사 :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영양: 오후 2:00 영양/영양: 오후 7:30 세백기도: 오전 5:30(월-금), 오후 10:00(토) 새벽기도: 오전 9:30, 11:30</p> <p>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8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2620</p>	<p><b>나성순복음교회</b></p> <p>담임목사 :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부예배: 오후 1: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p> <p>lafgusa@yahoo.com / www.lafgusa.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b>나성영락교회</b></p> <p>담임목사 : 박은성</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p>	<p><b>나성제일교회</b></p> <p>담임목사 : 김문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세백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p><b>나침반교회</b></p> <p>담임목사 : 민경협</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0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0:00 말씀심화: 오후 7:30 토요영양: 오전 5:30(월-토) 토요영양: 오전 9:00</p> <p>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amp; Puente) / www.nachimban.org</p>		
<p><b>남가주든든교회</b></p> <p>담임목사 :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40(월-토)</p> <p>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cca</p>	<p><b>남가주사랑의교회</b></p> <p>담임목사 :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후 1:20 영양/영양: 오후 7:00 성경공부(목요일) 오전 10: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b>대중장로교회</b></p> <p>담임목사 : 권영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금 요 예배: 저녁 7:30</p> <p>Tel: (714)719-2244, Fax: (714)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c.org</p>	<p><b>디아스포라교회</b></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 전영자 목사</p> <p>"세속에 풍겨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p> <p>목요예배: 저녁 8:00 주요예배: 오후 4:00</p> <p>Tel: (213)559-7728 (전화 팩스),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HB L.A., CA 90033</p>	<p><b>미주양곡교회</b></p> <p>담임목사 :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b>미주평안교회</b></p> <p>담임목사 :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영양): 오후 1:45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p> <p>www.mpcia.org Tel: (213)381-2202 / Fax: (213)381-2535 170 Bimlin Pl. Los Angeles, CA 90004</p>	<p><b>빛과 소금의 교회</b></p> <p>담임목사 : 이정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 학교: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 오전 6:00(토)</p> <p>Tel: (310)749-4756 2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p>
<p><b>베델인교회</b></p> <p>담임목사 : 김한요</p> <p>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성경공부: 오후 7:00 영양: 오후 1:30 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6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p><b>LA 복음연합감리교회</b></p> <p>담임목사 : 이영성</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아동/청소년/성년부: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성경공부(목요일) 오전 10: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b>복음장로교회</b></p> <p>담임목사 : 김상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주일학교: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b>세계소망교회</b></p> <p>담임목사 :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745-9191(CEH), 사역(818)893-88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b>웨스턴선교회</b></p> <p>담임목사 : 정상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p>	<p><b>얼버인침례교회</b></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수요성경기도: 오후 7:30</p> <p>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St., Irvine, CA 92604</p>	<p><b>윌셔크리스천교회</b></p> <p>담임목사 : 엄규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학부) 새벽기도: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영양: 오후 6:00</p> <p>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1 L.A., CA 90010</p>
<p><b>은혜한인교회</b></p> <p>담임목사 :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온라인성경: 365일 24시간</p> <p>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b>주님세운교회</b></p> <p>담임목사 :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경공부: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p>	<p><b>주님의영광교회</b></p> <p>담임목사 :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p> <p>Tel: (714)749-4500, Fax: (714)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org</p>	<p><b>중은마음교회</b></p> <p>담임목사 : 신원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수요예배: 오후 6:00(토)</p> <p>www.sccasiamissionchurch.com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b>코너스톤 교회</b></p> <p>담임목사 :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conerstonech.com / e-mail: pastor@conerstone.com Tel: (310)530-4040(CHO),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2</p>	<p><b>토렌스노인교회</b></p> <p>담임목사 :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청년) 침례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p> <p>www.torrancec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 미국청년선교운동의 역사 (중)



노봉린 박사 (AGST-Pacific총장)

V. 지구촌의 부흥운동 (Global Revival)(1900-39)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유럽과 북미의 대 교단신학교들은 자유주의 신학과 성경비판신학과 사회복음주의 신학이 성장하면서 미국 신학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대항하여 많은 복음주의 신학교들이 창설되었고 많은 복음주의 지교회들은 세계복음화 운동에 전력을 다하게 되었다.

미국 기독교청년들을 선교지로 파송하는 성경대학운동(Bible College Movement)이 전개되었다: Prairie Bible Institute(Canada, 1922), Columbia Bible College(1923), Bob Jones 대학(1926) 외 200개가 넘는 성경대학을 창설하여 기독교청년들에

하지 않은 선교단체들은 IFMA(Interdenominational Foreign Missionary Association)에 속해 있으며 IFMA는 1917년에 창설되었다. 교단에 속해 있는 선교단체는 EFMA(Evangelical Foreign Missionary Association)에 속해 있으며 1942년에 창설되었다. 매년 9월에 IFMA와 EFMA는 따로 선교모임을 갖고 매 2년마다 이 두 선교단체협의회는 같이 모여 새로운 선교전략을 구성한다.

VI. 복음주의 부흥운동(1950-2000)

미국의 복음주의 부흥(Evangelical Revival)은 빌리 그레함 목사의 부흥전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의 중요한 전도사역은 자유주의신학으로

하였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1947년 하롤드 린드셀(Harold Lindsell) 박사를 통해 풀러(Fuller)신학교를 도와주면서 복음주의 신학교육을 강화시켰다.

1956년 칼 헨리(Carl Henry) 박사와 같이 복음주의 잡지(Christianity Today)를 창간하여 1926년에 창간된 자유주의 신학 잡지(Christian Century)에 대항하는 복음주의 문서사역을 하여 미국 목회자들에게 복음주의신학을 확산시켰다. 평신도 수준으로는 Decision 잡지를 창간하여 평신도전도와 선교운동을 강조하였다. 1950년부터 빌리 그레함 목사는 빌리 그레함 TV크루세이드(Billy Graham TV Crusades)를 시작하였고 동시에 매 주일마다 "Hour of Decision"이라는 라디오 복음방송 설교를 하면서 복음전도와 성경신학을 미국사회에 널리 펼쳤다.

셋째로 빌리 그레함 목사는 국제적 전도대회와 로잔대회를 주관하면서 미국기독교청년들과 유럽교회는 물론 특별히 제3세계 교회지도자들에게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을 일으키는 제3세계 선교운동을 강조하였다.

제 1회 로잔대회는 스위스의 로잔에서 모였는데 2,700명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이 150개국에서 모여 세계복음화 선교대회를 거행하였다. 필자도 그때 싱가포르에서 선교사로 사

로 흘러가는 미국교회를 복음주의교회로 전환시킨 복음주의운동의 주동적 역할을 해온 것이다. 그의 빌리 그레함 이반젤리스틱 어소시에이션(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 미네아폴리스, MN) 사역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그는 수많은 부흥집회를 통하여 전 세계교회에 전도운동의 불길을 일으켰다. 1949년 로스앤젤레스 전도집회로부터 2005년 은퇴하기까지 60년간 185개국을 돌아다니며 400개 부흥집회를 인도했으며 2억 1,500만 명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다. 많은 부흥집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모시게 된 것이다. 그중의 두개 유명한 부흥집회는 1957년 여름 뉴욕의 매디슨스퀘어가든(Madison Square Garden)에서 3개월 부흥집회를 인도한 것이다. 필자가 그때 뉴욕에 3개월 일하면서 매일 저녁 빌리 그레함 전도집회에 참석하여 많은 은혜를 받은 생각이 아직도 생생하다. 1973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빌리 그레함 전도집회는 한 번에 110만명이 한 자리에 모여 최대의 부흥집회를 갖게 되었다.

둘째로 빌리 그레함 목사는 미국교회의 에큐메니칼운동을 통한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성경적 복음주의신학으로 변화시키는데 주동적 역할을

역했을 때 초창을 받아 참석하였다.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것은 로잔대회장 입구에 큰 시계가 걸려 있는데 1초마다 시계의 수자가 2, 4, 6, 8로 변하는 것이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참석자들에게 설교하기를 세계인구가 1초에 2인씩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복음화는 미국교회와 유럽교회 선교운동만으로는 이를 수가 없으므로 전세계 교회가 연합하여 예수그리스도가 주신 세계복음화의 대사명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노력할 때가 왔다고 강조하였다.

필자는 아시아신학연맹(Asia Theological Association)의 총무로 20년간(1970-90) 사역하였고 그 후 세계복음주의협의회 신학분과위원회(World Evangelical Alliance Theological Commission) 총무로 6년간(1990-96) 복음주의신학운동에 종사했기 때문에 제2회 로잔대회(마닐라, 1989), 암스텔담 2000선교대회(10,000명 참석) 등 여러 국제선교대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20세기 후반에 미국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미국기독교청년 선교사로 전 세계에 파송하면서 세계복음화에 큰 공헌을 세우게 된 것이다.

rohonolulu@gmail.com



### 선교 편지

#### 스와지랜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예레미야 10:23).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데살로니가전서 5:24).

벌써 6월이 지나고 7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금년 전반부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와 여기 선교지에도 일어나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함을 깊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 나머지 시간들, 이곳으로 부르신 부르심이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주께서 친히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목표로 하는 두가지 사역 중의 하나인 의대개설문제는, 이번에 기독교 대학 측에서 협력을 요청하신 분들이 지난 5월에 한국에서 방문하셔서 이곳을 둘러보고 여러 사정들도 파악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기독교 측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제반 사항을 갖추고 정부의 승인을 받는다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팀도 같이 힘을 합쳐서 일해 보자고 요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독교대학교 측과 함께 일할 때에도 동일한 요구를 했었고 그때는 기독교대학교가 그런 요구에 응할 수 없었기에 함께 일하지 못하고 헤어졌지만, 이번에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진다면, 그래서 함께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려 합니다. 기독교대학교 측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 나라에 필요한 부분을 올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 보건부와 협의하여 좀 더 적극적 형태의 협력사역을 하기로 한 부분은 보건부와는 합의를 하였고, 우리들의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아래에서 위로 건의하는 형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지역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요원들에게도 설명하여서 이들의 적극적 후원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그 절차를 따라 진행하고 현지답사도 그분들과 함께 진행하였고 빠른 시간 내에 그분들이 보건부에 서류를 올려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정식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건축이 시작되어야 하고(3개월 정도면 되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재정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1억원 내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모든 부분에서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적절하게 재정도 마련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4월 28일에서 5월 4일까지 국립의료원 송영동과장님이 3년째 방문하여 이곳 정부병원의 정형외과 Matcebula과장과 함께 Mankayane 정부병원에서 8명의 환자에게 무릎치환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인공관절은 한국의 Corentec 회사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LG생명과학에서 기증한 "히루

안" 관절주사제를 30인분 분량을 가져와 직접 시술하고 또 정부병원 의료진들에게 가르쳐서 시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팀원으로 3년째 함께한 조아람 수간호사, 2년째 함께 한 임용덕, 황두영 팀원들과 코렌텍 및 LG생명과학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월 11일부터 25일까지는 동아대홍부외과 조광조 교수님, 정영란 간호사 부부가 방문하여 투석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3곳의 병원(Mbabane 및 Mankayane 정부 병원, RFM병원)에서 2명의 혈관이식수술을 포함 25명의 환자들에게 혈관수술을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섬겨주셨고, 계속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여서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는 총남대 순환기내과 박재형 교수님이 두 번째로 방문하셔서 Lubombo정부병원과 스와코 센터에서 34명의 환자들이 자문진료 및 심에코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또 한국의 과천교회 및 총회해양의 의료선교(통합)의 후원으로 이곳 보건부와 협력하여 약 70명의 지역의료진들에게 산부인과 로명재 박사님과 함께 임신부와 어린이들에 대한 심장질환에 대한 워크숍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가능하면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후원해 주신 두 단체와 이를 위해 열심히 섬겨주신 남 아공 김승범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7. 8월에는 순천성가톨릭병원 소화기내과 김호중 과장님, 중앙대병원 흉부외과 조대윤 교수님, 총남대병원팀(소아외과 설지영 교수님, 성형외과 경현우 교수님, 순환기내과 정진욱 교수님, 정소영 공의, 최재익 전공의), 고신대병원팀(복강경수술팀 및 자궁경부암 검진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과 이곳 현지에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추석 전후로 비노기과, 피부과, 소화기내과, 통증치료 등의 진료팀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팀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6월에는 4분(김선애, 김은영, 피스임마누엘교회, 부산은성교회)이 특별후원으로 새롭게 함께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귀한 후원금 잘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음 소식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내내 평강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스와지랜드에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라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김선영 드림 sykim@cnu.ac.kr

#### 기도제목

1. 새로운 상주동역자(소화기 및 순환기내과, 소아과, 외과, 비노기과 등)들을 보내주시기를
2. 단기 사역자(1-4주 내외)들을 보내주시기를
3. 의대문제에 대한 주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잘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도록
4. 간호부, 의료기사부, 행정부 등 여러 분야 동역자들도 함께 할 수 있기를
5. 새로운 사역형태를 위한 제반 절차가 잘 진행되고, 건축 후원자를 만날 수 있도록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기독교경영 전략

기독교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19)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성경적 마케팅 전략(Biblical Marketing Strategy)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서 놀라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그의 교훈, 명령 그리고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의 방향 제시 등은 여전히 적절함을 갖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탄하게 된다. 우리는 경영의 치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때, 우리를 진리와 지식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성경적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케터(Marketer)는 여러 측면의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성경적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1. 시장 조사

시장조사는 고객과 기업 환경에 관한 정보 수집으로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에 더욱 잘 대응하기 위함은 물론, 기업의 다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조사 및 시장 정보의 사용을 고려해볼 때 이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인하는 것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특정 계층이 배척하는 제품을 상품화 하는 것(담배, 알코올 제품, 수류, 양용 삼분차 등) △제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제품을 불충분하게 디자인하는 것 △현재 혹은 장래에 사회나 사용자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첨가물이나 부품을 사용하는 것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 없이 대체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부품을 바꾸는 것 등이 있다.

4. 가격결정

마케터는 가격 전략을 결정과 관련

"필요를 찾아서 충족시켜 주는 것" 이 마케팅
답후 3:16-17이 성경적 마케팅 전략의 기초

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쓰여 있다. 이 성경구절이 성경적 마케팅 전략의 기초이다.

마케팅(Marketing)의 정의에 대해서 미국마케팅협회는 "마케팅은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환을 창출해내는 아이디어, 재화 및 서비스의 유통 경로, 가격 책정, 판매 촉진 등의 개념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한다. 좀 더 쉽게 마케팅 실무자들에게 마케팅이란 무엇이라고 한다면 "필요를 찾아서 충족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장 성공적인 마케터는 고객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고객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적절하게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일 것이다.

따라서 마케팅은 판매와 광고 그 이상의 내용을 의미한다. 이는 고객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갖기 위해 기업, 시장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적재적소에서 상품 유통, 적절한 가격 결정 그리고 제품 설계 및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성경적 마케팅전략을 수행하는 마

2. 시장 세분화

마케터는 사회/문화적, 자유 경제적, 경제적, 기술적, 그리고 합법적/정치적 이슈와 경향이 어떻게 소비자와 공급자의 욕구와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시장 조사 활동의 결과로서 외적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마케터는 소비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 세분화(Market segments)를 해야 한다.

일단 시장 세분화가 이루어지면 마케터는 각각의 세분화된 시장에 무슨 제품을 제공할지, 얼마의 가격으로, 어떤 경로로,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3.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과 관련하여 마케터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제품의 노후화를 기획하는 것 △현행 제품 수요가 사라질 때까지 제품의 형식을 억제하는 것 △소비자가 반드시 원하지는 않으나 필수적인 제품의 특성을 포함시키는 것(자동차의 안전벨트)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디자

한 다양한 결정을 해야 한다.

△동일 제품에 대해 소비자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을 부여하는 것 △한정된 공급 상황을 이점을 이용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것 △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더욱 비싼 상품을 소비자에게 팔려고 시도하는 기법(bait-and-switch) △실제와는 다르게 '특별가격'을 내세우는 것('정찰' 가격에 대한 혼동을 초래) △가격 유지 기간을 사실과는 다르게 전하는 것 △금융 조건이나 총 부담액을 고의로 제시하지 않는 것.

5. 유통문제

마케터는 적절한 제품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품이 판매되는 유통경로와 제품의 물적 유통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수요 상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위적인 공급 부족 상태를 조작하여 제품 공급을 통제하는 것 △유통 경로에서 부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제품 배달 시기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특정 유통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

(16면으로 계속)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매일가정예배

월 성령의 보증(고후1:21-24)찬177장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교회를 사랑함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첫째 성령의 보증을 가진 자임을 강조합니다(21-23).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선 것을 성령의 기쁨 부으심과 인치심으로 된 것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을 때 생겨집니다. 둘째, 바울 자신의 그들을 향한 사랑이 목숨을 아까와 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23). 이것

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함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셋째, 그런 수고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주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24).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이지 그들을 주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위에 세우려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도의 섬김이 교회의 난관을 이기게 한 것처럼 그런 확신을 가진 교회로 자라나야 합니다.

화 사랑의 치료법(고후2:1-4)찬378장

바울의 고린도교회에 대한 문제해결을 깊은 사랑으로 이룹니다. 편애가 덕이 되지 못함을 알고 근심하지 않기로 결심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태도가 교회를 치료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첫째, 겸손한 말이 치료합니다(1-2). 그들의 입장에서 서서 그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며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둘째, 눈물로 치료합니다(3). 그는 이 편지를 많은 눈물로 썼다고 합니다

다.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진실한 수고를 보여줍니다. 이 진실한 마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나옵니다. 진리만이 교회를 치료합니다. 셋째, 용서로 치료합니다(4). 사도의 교회에 대한 넘치는 사랑이 용서로 나타났고 그들도 문제제기가 된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사도적 사랑으로 내 가정을 치료합니다.

수 의와 사랑의 균형(고후2:5-11)찬285장

교회를 치료하는 전문가인 사도는 언제나 의와 사랑의 균형을 세우려고 힘썼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첫째, 죄를 치리하는 의의 날카로움을 봅니다(5-6). 죄를 지은 자가 미치는 교회의 영향을 안 사도는 권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을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덕을 세우려는 지혜가 보입니다(7). 이런 의를 세우기 위해 당사자에 대한 용서와 위

로로 대할 것을 가르칩니다. 찢으셨으나 싸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치료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의와 긍휼의 입맞춤이 교회를 세웁니다. 셋째, 범사의 순종생활을 가르칩니다(9). 사랑을 나타내라는 사도의 가르침이 항상 순종을 요구함은 이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균형은 세웁니다.

목 그리스도의 향기(고후2:1-17)찬233장

사도는 신자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비유하면서 신자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중심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이 모든 영역에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화상이 어떤 열매를 나타내니까?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14). 이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이 세워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이

런 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14).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이웃이나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 있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전하게 증거했습니다(17). 향기가 주변에 퍼져나가듯이 그리스도 말씀의 순수성이 알려지고 존경받는 자리까지 나가게 해야 합니다.

금 그리스도의 편지(고후3:1-5)찬463장

또 다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신분을 비유함으로써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첫째, 사도의 확신을 그대로 복사한 마음이란 것입니다(1-2). 사도의 마음에 가진 진리의 메시지 곧 깨달은 계시를 그들도 잘 깨달도록 성령이 빛을 비추어 알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마음에 심으신 것입니다(3). 이것은 자기 스스로 배워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

늘의 스승이신 성령이 알게 하신 것이기에 성령의 기록인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구해야 합니다(5). 그 세계를 본 신자는 사람에게서 오는 만족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인정과 칭찬과 위로로만 만족하는 것으로 자족합니다. 이 큰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할 말이 있는 사람으로 삽니다.

토 새 언약 일꾼(고후3:6-14)찬54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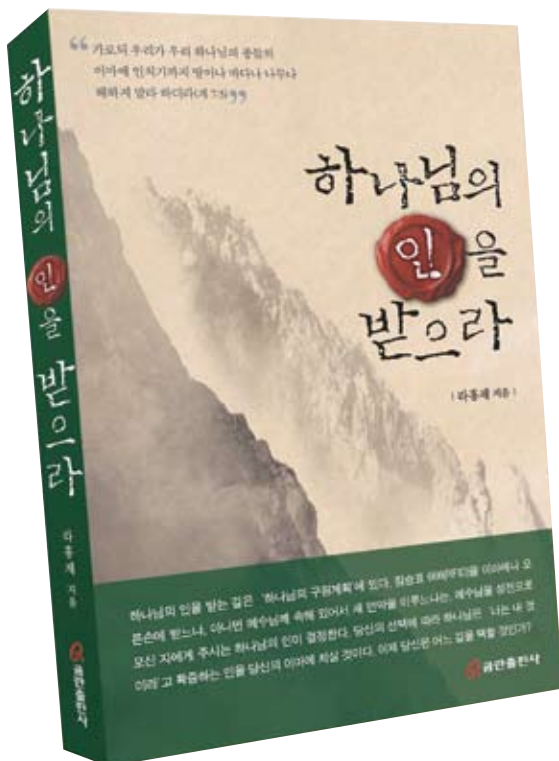
사도의 교회치료는 언제나 새언약의 기초 위에서 시작합니다. 창세전에 가진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은 수천년 구약시대를 통해 준비하셨다가, 새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완성된 새언약을 바라보고 그리로 오라고 초청합니다.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첫째, 탁월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보았습니다(6). 율법의 조문을 따르는 옛 언약의 일꾼과 비교될

수 없이 성령을 따라 사는 일꾼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영광이 탁월합니다(7).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요1:14). 그러므로 그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셋째, 직분이 탁월합니다(8). 자연히 그 직분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새언약 일꾼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고 특권이 있습니다. 그 세계를 주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 (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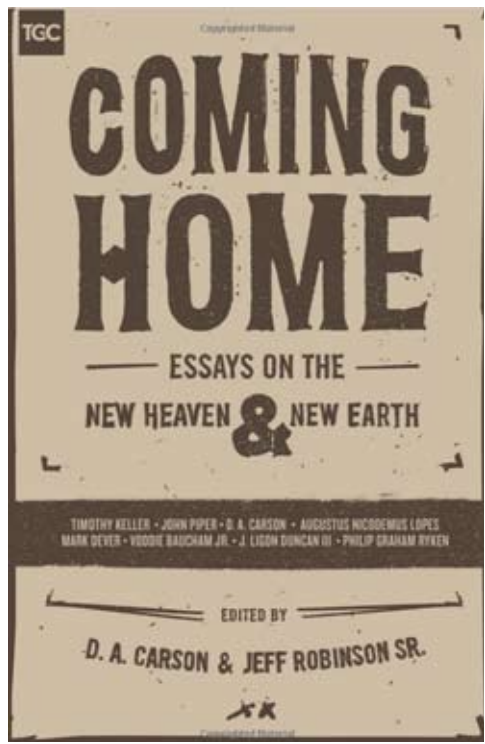
# 본향 소망하며 현실외면 않고 멋지게 사는 길 있다!

## TGC, 2015년 전국 컨퍼런스 주제 “새 하늘과 새 땅” 강연원고 책으로 출간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다 보면 여러 중요한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싶을 때가 있다. 가령 에덴동산에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공의와 제사장직, 삼위일체, 성육신, 칭의, 성화, 부활, 성전, 은혜, 언약 등의 주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연결될까에 관심이 간다.

초교파 모임인 “가ospel 코어리션(The Gospel Coalition)”은 지난 2015년

전국 컨퍼런스에서 팀 켈러, 존 파이퍼 외 6명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성도는 어떻게 천국의 맛보기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의했고, 강연 원고들을 모아 2017년 책으로 출간했다(Coming Home: Essays on the New Heaven and New Earth).



조한다. 우리는 성경의 한 장을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복음 중심으로 오롯이 해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D. A. 카슨을 에스겔 40-48장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진짜 성전을 베틀과 흙으로 지은 건물이나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 그 분임을 선언한다. 마크 데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을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릴 세속적인 가치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새 하늘과 새 땅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고백한다.

와 역사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의 핵심이고 중심이라는 사실을 증언한다.

마지막으로 필립 라이켄은 계시록 21장과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동산,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든 것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대하게 한다.

다시 한번 이 땅이 우리의 전부기 아님을 고백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는 우리가 이 땅을 포기하고 만날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다. 우리는 분명히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 맞추며 살아야 한다.

시편 1편의 복된 사람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천국을 묵상한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조율하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진실을 삶으로 가져와 실천하는 일까지 포함한다. 세상의 타락한 지식과 오염된 지혜로 혼탁해진 마음은 끊임없이 천국적인 가치관과 지혜로 교정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덤으로 얻게 된다. 매일 주님 뜻을 신부처럼, 각자의 등불을 밝히고 깨어 기도하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그 날까지 거룩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길 결단해야 한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시대의 복음주의 리더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본문으로,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중요한 과정에서 소망의 힘으로 사는 법에 관한 신선한 통찰을 풀어 놓는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천국과 일상 사이의 괴리를 많이 경험한다. 깨달음과 지식이 마음과 손발로 내려오지 않고 따로 노는 일이 흔하다. 특히 천국(이나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익히 알던 것에 깊이를 더하기 보다 새로운 지식을 찾는 데 더 갈급하다.

하지만 저자들은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곤고함과 무력함을 압도하는 천국 소망이 이미 예비되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러한 복된 소망을 가진 성도가 균형형을 잃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성경 전

## 주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덤으로 현실 속 곤고/무력함 압도하는 천국소망 이미 예비

체를 조망하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기 쉽게 풀어간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저수지와 같아서 그 수원(水源)과 연결될 통로만 찾아낼 수 있다. 그 자원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만 안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살 수 있을 것이다.

팀 켈러는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미래에 대해 마음을 쏟으라고 말한다. 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특히 하나님의 복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순종이라는 통로를 거쳐 받는 것이다. 영광은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것을 우리에게 나누시는데 있다.

존 파이퍼는 이사야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고향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임을 보여준다. 특히 예언서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의 최종 고향은 천국 그 자체도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임을 강

으로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장래의 진정한 소망과 이어지는 가치임을, 그래서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고난을 받으라고 도전한다.

아우구스투스 로페스는 요한복음 14장으로 통해서 죽음을 앞둔 두신 예수님의 선포와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 나라, 더 큰 일, 그리고 더 거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초점을 이동시킨다.

보다 보람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에 담긴 바울의 목회자적 심장에 투영된 부활의 변화

(13면에서 계속)

방향을 맞춘 선디도 와서 배식으로 섬겼고, 또 클라리도 몇 년 만에 돌아와 섬기고 있습니다.

5. 그리스교의 젊은 '미하이' 신부가 아내와 어린 딸, 처제들을 데리고 저희 주일학교에 왔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피테르' 전도사님과 만들기 시간을 지도하는 '원선생'님과 크리스티나! 감사합니다!

6. 가정심방! 새로나온 '한나' (맨 아래 사진, 오른쪽)가 엄마 없이 정서 불

안중으로, 콤플렉스 학교로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 계속 일반학교에서, 다음 학년에 올라가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비드'(선디의 남동생)는 헝가리 소년부 경량급 레슬링 선수입니다. 믿음으로 잘 성장하도록...!

그 기도, 선교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후원에 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다리며... May God bless you!

헝가리 흥부선교사, 김흥근 & 서명희 드림.  
mylovehungary@hanmail.net

(15면에서 계속)

△선적 문제(Shipping problem)에 있어서 부당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 △유통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조직들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동기를 부여하거나 제공받는 것들에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6. 커뮤니케이션 결정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결정들은 다음과 같다.

△경쟁 제품을 불공정하게 비교하는 것 △약점과 결점을 인정하지 않

고 단지 제품의 장점만을 논하는 것 △판촉 상품이나 특별 판매 조건을 그릇되게 소개하는 것 △소비자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부정당한 제품을 강매하는 행위 △소비자가 구매 능력이 없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것 △실제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욕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마케팅 의사결정을 성경적 기준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초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dr.jameskoo@yahoo.com

##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 변비

고혈압약 등 약물 부작용도 원인

서구화된 식습관과 걷지 않는 생활습관으로 인해서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의 질병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흔한 변비에서부터 각종 암의 발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은퇴를 앞둔 60대 중반의 회사원 김 씨는 지난 6개월 동안 변비로 고생해왔다. 젊을 때부터 가끔 변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물을 많이 마시거나 운동을 하고 사과 등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좋아졌지만 이번에는 위와 같은 노력에도 변비가 좋아지지 않았다. 대변은 3일에 한 번씩 보는 편이고 한번 화장실에 앉으면 변을 보는데 20분 이상 걸리고 그 양도 많지 않았다. 또 배변 후에도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았다.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지는 않았고 색깔도 정상이었다. 변비 때문인지 가끔 아랫배가 아픈 느낌이 있었다. 김씨는 6개월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당뇨병이 있지만 약물 치료로 잘 조절되는 편이었다. 담배는 과거에 많이 피웠지만 5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고 끊었고 술은 저녁식사 후 포도주 한잔 마시는 정도다 평소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이학적 검사상 별다른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김 씨가 복용하는 혈압 약의 부작용으로 변비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혈압 약을 바꾸고 비약물적 치료인 식이요법과 운동을 시작하도록 권했다. 또한 대장 내시경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를 받도록 권했다. 김 씨의 변비 증상은 위와 같은 비약물 치료로 호전되었다.

미국인의 1/4이 변비증상을 느끼고 있으며 일년에 250만 명이 변비 때문에 의사를 찾는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변비는 일주일에 3번 이하로 대변을 보거나 변을 볼 때마다 배변 양의 1/4 정도만 보는 경우라고 정의한다.

변비의 원인은 다양하다. 첫째, 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주로 섭취하는 경우다. 고기나 치즈, 햄 등은 섬유소가 적어서 소화되고 나서도 대변의 양 자체가 적고 장 운동을 감소시켜서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둘째, 물을 적게 마시는 경우도 변 자체를 굳게 해서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

셋째, 장거리 자동차 운전자나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사무직 직장인도 평소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운동이 부족하면 장운동이 저하되어 변비가 생기기 쉽다.

넷째로 김 씨의 경우처럼 약물도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혈압약이나 진통제 등이다.

그 외에도 갑상샘저하증이나 과민성 대장 증상, 당뇨병 등도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대장에 생긴 종양도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유 없이 만성변비로 고생하는 경우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 제4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4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8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도서	은혜받는 습관 데비드 마티스/생명의말씀사	어머니 또 부르고 싶은 어머니 한국도서출판/류태영 외 8명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한홍/규장	살피심 김영재/두란노	페이버 하형록/창림
----------	---------------------------	----------------------------------------	-------------------------	----------------	---------------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독일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조이서적 213-380-8793 www.joyla.com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임승쾌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